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8년 7월 15일(주일) 제1205호



오늘은 '대중교통 이용하는 주일'

지역사회와 이웃 배려하고, 이산화탄소 감축 동참 '자원순환 마을 만들기' 캠페인도 실시

오늘(15일)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일이다. 교회가 앞장서서 지역사회와 이웃을 배려하고, 이산화탄소를 감축하는 환경운동에 동참하는 아주 뜻 깊은 캠페인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이동거리 5km당 1kg씩 줄일 수 있고, 매주 주일 교통체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역사

회와 주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를 할 수 있다.

사회선교본부는 생활 속에서 환경을 아끼는 방법을 성도들에게 알려 주기 위하여 (재)녹색미래와 함께 서빙고 온누리교회 이전만 광장에서 '자원순환 마을 만들기' 캠페인을 실시한다. 일회용 컵, 알루미늄 캔, 폐우산 등을 버리지 않고 생활용

품으로 만들어보는 체험을 할 수 있다.

사회선교본부는 "오늘만이라도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다스리라고 주신 자연을 함부로 대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면 좋겠다"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자가용을 집에 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교회에 오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덧

붙여 "교회 주변 도로나 아파트 단지에 불법주차 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부탁했다.

오하린 성도(SNS공동체)는 "더운 날씨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조금 불편하기는 하지만 환경을 아끼고 지역사회와 주민들을 배려하기 위해 적극 동참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지희 자매(길공동체)는 "차를 가지고 교회에 오면 주차문제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마음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어서 좋다"면서 대중교통 이용을 적극

권장했다.

오늘 교회 주차장은 장애인, 70세 이상 어르신, 임산부, 36개월 이하 자녀 동반, 다자녀 성도 등에게 사전에 발급되는 주차증을 부착한 차량만 이용할 수 있다. 교회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촌역에서 서빙고 온누리교회,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 이촌역, 양재역 환승주차장에서 양재 온누리교회, 양재 온누리교회에서 양재역 환승주차장을 오가는 셔틀을 운행한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대학청년부, 'FA 15기' 참가자 모집

8월 2일까지 전화나 이메일 신청

대학청년부에서 FA(Frontier Agency) 15기 참가자를 8월 2일까지 모집한다. FA는 대학청년부 단기훈련선교 프로그램이다. FA 15기 참가대상은 온누리교회 등록세례교인(6개월 이상)으로 35세 이하(84년생)여야 한다. 참가신청은 전화나 이메일로 하면 된다.

8월 4일 FA 면접 및 오리엔테이션이 열리고, 8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Acts29비전빌리지에서 합숙훈련을 실시한다. 합숙훈련을 마치면 9월 21일부터 2019년 2월 1일까지 선교현장에서 사역하게 된다. 파송 예상국가는 네팔, 남아시아국, 동아시아B국이다.

FA에 가지 않은 성도들도 후원과 기도로 동참할 수 있다. FA 중보기도모임이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오후 7시 30분 서빙고 온누리교회 미션홀에서 진행되고 있다.

문의: 070-4464-8105

홈페이지: fa@tim.or.kr

후원: 하나은행

573-910009-62805(FA간사)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양재 전기설비 정기검사

양재 온누리교회 전기설비 정기검사가 오는 30일(월) 실시된다. 수전설비, 배전설비, 발전설비, 장비교체에 대한 정기검진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양재 온누리교회 모든 시설의 전기가 차단된다. 냉방과 이외의 모든 기기의 전원을 정전작업 전에 뽑아야 한다. 경비 및 전산장비 등은 관련 업체에 관련사항을 사전에 전달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름 아웃리치 후기 및 사진 공모

본지에서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여름 아웃리치 후기 및 사진을 공모한다. 성인공동체, 대학청년부, 차세대, 캠퍼스, 사역팀의 국내외 아웃리치 간증, 아웃리치 현장을 담은 생생한 사진, 후기를 쓴 성도의 얼굴 사진을 보내주면 7~8월 온누리신문에 게재한다. 원고분량은 A4용지 1장(글자크기 10포인트)이다. 매주 수요일 오후 3시까지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문의: 02-3215-3196

People

만나고 싶었습니다

음악을 잘 모르는 아마추어가 들어도 실력이 수준급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다. 사랑챔버(지적장애인으로 구성된 오케스트라) 박민수(예수사랑부) 형제의 피아노 연주와 노래 실력 말이다. 시각장애와 자폐증이 있는 박민수 형제는 참 특별한 능력이 있다. 다양한 악기를 다룰 줄 아는 음악천재이자 절대음감 소유자이다. 음악으로 표현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아름다운 청년 박민수 형제를 만났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천만불짜리 절대음감 소유자 박민수 형제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음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사랑챔버 공연 중 박민수 형제가 어머니 송순행 집사의 도움을 받아 노래부르며 연주하고 있다(좌).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프루츠먼과 함께 한 모습(우).

영화 ‘그것만이 내 세상’ (이병헌, 박정민, 윤여정), ‘레인맨’ (더스틴 호프만, 톰 크루즈), ‘말아톤’ (조승우), 드라마 ‘굿닥터’ (주원, 문채원)의 공통점이 있다. 주인공들이 서번트 증후군을 가진 사람이라는 점이다. 오늘 우리가 만난 주인공 박민수 형제도 서번트 증후군이 있다.

서번트 증후군은 백치현자(idiot savant) 즉, 정상 이하의 지능을 가졌거나 감정 폭이 극히 제한적인 사람이 특정 분야에서 천재적인 재능을 보이는 희귀한 증상을 말한다. 자폐증이나 지적장애가 있고, 사회성이 결여된 사람 중에서 약 10%가 서번트 증후군을 갖고 있다고 한다.

박민수 형제는 바로 그 10%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그는 음악 부문에서 천재적인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절대음감 소유자로 피아노, 바이올린, 색소폰 등을 연주할 수 있다. 노래도 빼어나게 잘한다. 단 한 번도 전문적인 음악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도 말이다.

일주일 만에 산산조각 난 꿈

소년같이 옛돼 보이는 박민수 형제는 올해 39살이다. 사랑챔버 단원 중에서 두 번째로 나이가 많다. 어머니 송순행 집사도 언뜻 보면 젊어 보이지만 올해 70세다. 사랑챔버 단원 부모 중에서 나이가 가장 많다. 나이로만 치면 권사 직분을 받고도 남았을 텐데 박민수 형제와 24시간 붙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임직 기준을 채우지 못했다.

“사랑챔버 활동을 올해 그만두려고 했었어요. 나이가 많아서요. 그런데 지난 3월 5사단 공연에서 민수의 연주를 듣더니 군목선생님이 군목생활을 하면서 오늘 같이 은혜로운 찬양은 처음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씀이 사랑챔버를 그만두지 말라는 하나님의 신호인 것 같았어요.”

박민수 형제의 부모는 태어날 아들에 대한 기대가 누구보다 컸다. 아버지는 아들을 정치가로 키우겠다는 원대한 꿈을 꿔다.

“민수 생일이 3월 1일이예요. 그래서 애들 아빠는 민수를 정치가를 시켜야겠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박민수 형제가 태어나고 고작 일주일 만에 그 꿈이 산산조각 났다. 정말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엄청난 일과 마주해야 했다.

“민수 눈동자가 희끄무레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됐다. 태어난 지 고작 1주일밖에 안 된 갓난아기에게 주사바늘을 꽂았다. 주사 놓을 데도 없는 어린 아기에게 너무나 가혹한 시간이 이어졌다.

“6개월 동안 거의 매일 병원을 다니면서 차도가 있는지를 확인했는데 소용없었어요. 그래서 안과로 데리고 갔더니 그 의사선생님 첫 마디가 “하나님 믿습니까? 안 믿는다면 믿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였어요.”

눈의 시신경이 마르는 병이었다. 차차 빛조차 못 보게 될 거라고 했다. 약물중독이 원인

인 것 같다는 말도 덧붙였다.

“민수를 가졌을 때 제 몸이 별로 안 좋았어요. 민수 위로 아이 둘(형, 누나)에 시누이 둘까지 데리고 있었거든요. 몸이 힘들었는지 코피가 계속 났어요. 그래서 민수 아버지가 동네 약국에서 비타민이 들어간 지혈제를 받아왔어요. 그 약을 임신 기간 내내 먹었던 게 장애의 원인이었어요.”

송순행 집사는 아들의 장애가 자기 때문이라고 절망하고 자책했다. 남편은 남편대로 왜 하필 그 약을 사다줬는지 모르겠다고 자책했다.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잘못된 게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런 시련이 닥쳤는지 알지 못해 원망도 했다. 그러나 아들을 키우면서 그 이유를 알게 됐다.

“민수 덕분에 온가족이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시부모님은 시동생이 목사였는데도 불구하고 절에 다닐 정도로 완고한 분이셨어요. 그 분들이 민수 때문에 교회 가게 됐어요. 남편도 민수가 “아빠, 온누리교회 가자”해서 교회 나오게 됐어요.”

아주 특별한 재능과 정체성

장애가 있는 아이를 어떻게 음악천재로 키울 수 있었을까? 특별한 노하수가 있었던 것 아닐까?

“당시에는 장애 관련 자료가 별로 없었어요. 신문에 실린 장애인 자녀를 둔 엄마의 후기가 고작이었어요. 저는 단순히 민수가 눈이 안 보니까 뭐라도 많이 들려줘야겠다고 생각하

고 24시간 라디오를 틀어줬어요.”

어느 날 박민수 형제가 팝송을 따라 부르는 데 외국어 발음 그대로 부르는 게 아닌가! 게다가 누나가 피아노 학원에 다니고 있었는데, 집에서 피아노 연습하는 걸 옆에서 듣더니 그 대로 따라 치기까지 했다.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피아노를 똑같이 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다들 깜짝 놀랐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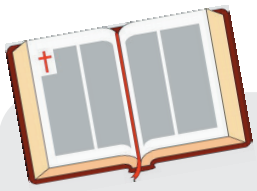
동네 피아노 학원에 아들을 데리고 갔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 아이는 절대음감을 가진 아이라 자기는 못 가르친다”고 했다. 그 대신 음감이 발달된 사람은 피아노보다 현악기를 가르치는 게 좋을 것 같라며 바이올린 선생님을 소개시켜줬다. 그 선생님한테 잠시 바이올린을 배웠다. 그리고 맹학교에 들어갔다. 다행히 그 맹학교 밴드부 선생님이 현악기와 관악기를 모두 다룰 줄 아는 분이였다.

“맹학교 밴드부 선생님이 나이 드신 분이셨는데 마치 할아버지처럼 아이들을 가르치고 보살펴주셨어요.”

박민수 형제가 온누리교회와 인연을 맺은 것도 그 맹학교 덕분이였다. 맹학교에 사회적응훈련 일환으로 장애인들에게 외부 견학을 시켜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자원봉사자 선생님이 민수를 데리고 온누리교회를 갔다. 그리고 온누리신문에서 사랑챔버 관련 기사를 접하게 됐다. 그때부터 꼬박 20년 동안 사랑챔버에서 활동하면서 음악으로 하나님을 전하고 영광 돌리고 있다.

“한번은 미국에서 공연을 했는데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신이 30년 동안 하나님을 믿었는데 오늘처럼 큰 은혜를 받기는 처음이라고요. 그때 비로소 깨달았어요. 음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민수의 정체성이라는 것을요.”

가끔 박민수 형제가 연습을 게을리 하거나 때를 쓰면 송 집사는 “너의 정체성이 뭐야?”라고 물어본다. 그러면 박민수 형제는 “음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요”라고 소리친다. 절대음감을 가진 음악천재가 제대로 된 음악교육 한번 받지 않았는데도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음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다. 박민수 형제를 보면서 영화 ‘말아톤’ 주인공이 “초원이 다리는 백만불짜리 다리”라고 했던 대사가 떠올랐다. 박민수 형제의 아주 특별한 재능과 가치는 천만불짜리다. 아니 그 이상이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이다.



주일강단



안광국 목사

에스더는 민족말살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기도하였고 용기 있게 아하수에로 왕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녀의 용기가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더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어떤 이들이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한다”(히 11:33)고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역사적 사건이고, 앞으로 우리 역사에서 일어나야만 하는 일입니다.

한 민족이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에스더서는 출애굽기와 공통점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에서 구원을 받은 유월절 당일에 이스라엘을 몰살시키려는 칙령이 페르시아 전국에 공포가 되었고(에 3:13), 광야 생활 중에서 이스라엘에게 유일하게 전쟁을 걸어온 아말렉 족속(출 17:8~16)이 천년 뒤에 페르시아 땅에서 아각 족속(삼상 15:20)으로 변장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사울 왕 시절 아말렉 족속은 진멸되고 오직 아각 왕만이 살아남았는데 이제는 에스더 왕비만 살아남게 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족속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탄은 데칼코마니의 반복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대로 모방하여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끊임없이 살리시고 사탄은 끊임없이 죽이려고 합니다.

“도둑은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요 10:10)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다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예정하시고,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며,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지혜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르드개가 죽을 운명에 놓여 있는 그 밤에 아하수에로 왕이 잠을 설치는 것, 잠이 오지 않아 펼친 역대기에서 때마침 모르드개의 이야기를 읽은 것, “누가 뜰에 있느냐?”고 물었을 때 하만이 왕궁 바깥뜰로 들어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장로교 목사와 인간의 자유의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감리교 목사가 만났다고 합니다.

장로교 목사가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은 하나님의 예정 때문입니다”라고 말했다니 감리교 목사가 “그럼, 내가 하나님의 예정을 바꾸어 놓을까요?”하며 험하니 가버렸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장로교 목사가 혼잣말로 “이것도 다 하나님의 예정인데”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섭리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이와 가장 근접한 단어는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경륜(엡 1:9)’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예정과 통치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예정은 하나님의 영원한 결정을 우리가 말하는 것으로써 그가 각 개인에게 일어나기 원하는 바를 스스로 확정한 결정이다. 우리는 모두 동일한 조건에서 창조되지 않았는데 얼마는 영원한 생명으로 나머지는 영원한 멸망으로 예정되었다”고 말하며 스스로 예정을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했습니다.

1648년 칼빈의 후예들이 완성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의하면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위한 결정으로서 어떤 사람들과 천사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다른 사람들은 영원한 죽음으로 예정하셨다. 이처럼 예정되고 미리 제정된 천사들과 사람들은 특별하게 불변하게 계획된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수는 아주 확실하고 명확한 것으로써 증가하지도 감소되지도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면죄부를 돈으로 사고 파는 등의 인간적인 행동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가톨릭의 심각한 부패부터 탈출한 종교개혁자들이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강한 어조로 말한 교리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자들의 예정과 섭리가 맞다면 에스더와 모르드개는 기도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을 방법을 다 예정하고 계신데’라고 생각하면서 그저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르드개와 에스더에게 기도를 시키셨고 그들은 3일 동안 금식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용기 있게 왕에게 나아가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사랑 가운데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셨습니다”(엡 1:4-5).

이 말씀에서의 예정은 ‘프리오리조’로 한계를 정하다, 경계를 정하다는 뜻입니다. 오늘날에도 이탈리아 로마에 도착하면 공항 출입국 관리소에 ‘프로오리스모스 로마’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뜻은 ‘도착지 로마’라는 뜻으로 ‘여기서부터 로마입니다’라는 뜻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님께서 한계를 정해 놓으신 것이며, 그 안에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선택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 결정된 역사의 흐름 속에 살아가게 되며, 그것은 창조로부터 시작되어 종말과 심판을 향해 나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계를 정해 주셔서 그 한계 안에서 자유롭게 선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잘못 이해하는 사람만이 아무런 생각 없이 머물러 기도도 하지 않은 채 예배와 헌신도 없는 미련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와 모르드개처럼 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한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에 예민하게 반응한다

하만은 왕이 영예를 주려고 하는 사람이 자기라고 착각하고 왕에게 최고의 선물을 제안합니다.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말에 태우고, 머리에는 왕관을 씌워 거리를 돌면서 모든 사람에게 영광을 받게 해야 한다고 왕에게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은 자신이 아닌 모르드개에게 돌아갔습니다. 한편으로는 참 통쾌하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만이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은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영광 받을 사람이 누구인지 물어보지 않고 그런 대답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민한 사람이 있고 둔감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민해지는 때가 있고 둔감해지는 때도 있습니다. 요사이 우리 자녀들이 기말시험을 보는 기간이라 예민해져 있는 때입니다. 이럴 때는 평소처럼 자녀들을 대하기보다 조심스럽게 대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영적으로도 예민해지는 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금식할 때이고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왜 단번에 왕에게 요구하지 않고 대신 잔치를 베풀었을까요? 그 잔치에서도 말하지 않고 왜 한 번 더 잔치를 베풀었을까요? 에스더는 왕이 그날 밤 잠 못 들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날 밤 모르드개의 일을 역대기에서 찾아서 읽을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지 않지만 이것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영적인 예민함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영적인 민감함을 소유한 사람

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잘 분별합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에 함께 움직이고, 하나님이 멈춰 계실 때에 멈출 줄 압니다. 하나님과 손과 발이 착착 맞습니다. 에스더와 하나님의 손과 발이 착착 맞듯이 말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아웃리치를 위해서, 여름 성경학교와 캠프를 위해서 일하시는 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맞춰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손발이 착착 맞는 영적인 민감함을 소유하며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상황을 변화시켜 달라고 하지 말고 내 상태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라

세상 친구들과 조연자들은 참 간교합니다. 하루 전에 모르드개가 왕에게 총애를 받는 것 같은 상황을 보자 하만에게 아첨하면서 모르드개를 50규빗의 나무 막대기에 목매달면 얼마나 즐겁겠냐고 막 떠들더니 이제는 모르드개가 영광을 받는 것으로 상황이 바뀌자 당신은 틀림없이 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만에게 말합니다.

에스더 옆에는 기도하며 충직한 조연을 하는 모르드개가 있었지만 하만 옆에서 상황에 따라 칭찬과 저주를 하는 간교한 친구들과 아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옆에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까? 세상의 조연을 하는 간교한 친구들입니까?

하만은 왕에게 모든 권력을 위임받는 상황에 있었지만 교만하기 짝이 없는 상태로 마음이 부패했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개는 민족이 멸절 당할 상황에 놓여있지만 금식하며 기도하는 영적인 상태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 바뀌기를 기도합니다. 재정적인 상황, 건강의 상황, 관계적인 상황이 바뀌었으면 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상태가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는 자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 감사하는 자로, 예배하는 자로, 순종하는 자로, 겸손한 자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상황이 안 좋아져도 우리의 상태가 좋아지면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속에 어려움을 묵인하시는 이유 중 하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정금과 같이 단련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모르드개와 같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당신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김포공동체_ 캄보디아



유영준 집사
(김포공동체 선교사역자)

김포공동체가 지난 5월 5일 캄보디아 씨엠티 아웃리치를 떠난 날이었다. 아마 온누리교회 아웃리치 역사상 최초의 일이었을 것이다. 김포공동체가 전세기(?)를 탄 것이다. 아웃리치 팀원 26명(어린이 7명 포함)이 탄 비행기의 기장이 바로 김포공동체 소속 집사님이었다. 그 집사님은 김포공동체 아웃리치 일정에 맞춰 비행 스케줄을 잡으셨다. 비록 아웃리치 일정 전체를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하기 위해 조종석에 올랐다.

“이 비행기에는 온누리교회 김포공동체 성도들이 캄보디아 봉사활동을 가기 위해 타고 있습니다.”

비행 중에 우리팀을 소개하는 안내멘트가 나왔다. 5시간의 비행은 편안하고 즐거웠다. 5월 6일 주일 아침, 캄보디아 현지 교회를 방문했다. 캄보디아어를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함께 찬양하고 손뼉 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었다. 참으로 오랜만에 예배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경직되고 형식적이었던 나의 예배가 예상치 못했던 장소에서 회복되었다. 아웃리치를 마치고 돌아온 지금도 캄보디아를 떠올리면 눈물이 흐른다.

그날 주일예배에서 우리팀은 생각지 못했던

은혜를 받았다. 예배 도중 한 청년이 단상 앞으로 나가 세례를 받았다. 신앙생활을 막 시작한 캄보디아 청년의 세례식을 목도하고, 그들과 함께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거룩한 성찬식에 동참했다. “복음을 전하러 간 곳에서 더 큰 은혜를 받았다”는 고백이 절로 나왔다.

우리는 밥퍼사역을 하고 있는 다일공동체에도 방문했다. 빈민촌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점심식사를 제공하고 있는 곳에서 우리팀도 함께 식사를 준비했다. 7명의 어린이 팀원들은 빗자루를 들고 청소를 했다.

어른들은 식사를 준비하기에 앞서 현지 어린이들의 머리카락을 감기는 일을 먼저 했다. 30도를 웃도는 더위에 시원한 물로 아이들의 머리카락을 감겨주는 집사님들의 모습이 참 아름다웠다. 한쪽에서는 밥과 반찬을 준비했다. 맛있게 차려진 밥과 반찬을 식판에 담았다. 점심밥을 먹기 위해 찾아오는 아이들이 많았다. 그때 만난 한 아이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초롱초롱한 눈빛의 아이는 자존감이 대단했다. 식사를 마친 아이는 하얀 비닐을 꺼내 들고 남은 밥을 조심스럽게 담기 시작했다. 그 아이를 도와주려고 반찬을 담으려는 순간 그 아이는 나의 손을 막았다. 밥과 반찬을 담은 비닐이 따로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 아이의 당당함에 놀랐다. 남은 밥과 반찬을 하나도 남김없이 쓸어 담은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찡했다. 그렇게 가져간 밥이 그날 저녁 그 아이와 가족들이 함께 먹을 저녁식사라고 한다.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

“나는 그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캄보디아 빈민촌 아이들의 머리를 감겨주고 있는 김포공동체

경하는 자니라”(잠 14:31).

성경은 우리에게 가난하고, 굶주리고, 고아된 자를 도우라고 말씀하셨다. 선교지에서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며 하나님 사랑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120년 전 한국 땅에 온 선교사님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이번 아웃리치에서 밥퍼사역, 수상 빈민촌 전도활동, 초중학교 방문 등을 하면서 그 땅에서 세워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느낄 수 있었다. 아웃리치 마지막 날 방문한 초중학교 벽에

그려진 그림이 큰 감동을 줬다. 개구리 한 마리가 오리에게 잡아먹히는 그림이었다. 그림 속 개구리는 오리에게 잡아먹히고 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의지를 보여주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도 던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나는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을 향해 선교하라는 하나님의 목소리인지도 모르겠다.

“나는 그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강남C공동체_ 강원도 삼척



오지연 성도
(강남C공동체)

중학교 때 학교에서 처음으로 보육원에 봉사활동을 갔던 기억이 난다. 그때 누군가를 섬기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꼭 봉사활동을 다시 하고 싶었다.

나는 피아니스트로 손가락 외상 때문에 10개월째 만성통증을 겪고 있다. 그래서 매우 우울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 나에게 첫 아웃리치를 가는 소중한 시간을 허락해 주셨다. 이번 아웃리치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시고 만지실 것을 기도했다. 강남C공동체 겸손다락방과 사랑다락방 성도님들이 강원도 삼척까지 함께해 주셨다. 긴 거리 안전운전과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강원도 삼척 문암교회 아웃리치 장소로 출발했다. 도착하기 전까지 손을 다친 내가 과연 봉사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됐다.

삼척 문암교회는 왼쪽으로 푸른 바다와 기차길이 보이고, 넓은 마당이 있는 아름다운 교회다. 함께 예배와 찬송으로 이번 아웃리치에서 사역을 시작할 때까지 어디로 가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잘 알지 못했는데, 모든 팀원들도 아

무런 말없이 순종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느꼈다. 저녁에는 문암교회 근처에 있는 7개 교회 목사님들을 초대하고 식사대접을 하고 다음날에는 그 교회들을 조를 나눠 탐방하는 일이다.

저녁 초대 전 그중에서 도움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신기중앙교회로 향했다. 6월인데도 강원도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 땀방울이 밖에서는 담벼락 시멘트 복구 작업을 하고, 안에서는 페인트칠을 했다. 나도 왼손으로라도 열심히 페인트칠을 했다. 천사 같은 아이들은 무릎을 땅에 대고 나란히 앉아 낮은 부분에 페인트칠을 했다. 딸이 땀을 닦는다고 손을 머리에 대는 순간 흰 페인트가 잔뜩 묻었다. 손이 불편했던 내가 딸의 머리에 묻은 페인트를 닦아주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인내와 기도가 필요한 순간이었다.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도 아이들에게는 소중한 은혜의 시간이라는 걸 깨닫게 하셨다.

나는 부족한 일손이었지만 도움이 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 너무 속상했다. 바다에 넓게 뿜 마른 페인트 자국을 제거할 때 왼손가락마저 마비가 왔고 두려움에 또 하나님께 기도했다. 아내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다시 힘을 낼 수 있었고, 오랜 시간 끝에 모든 분들의 수고로 페인트칠과 담벼락 보수작업을 깨끗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 부족한 손길이었

두려움을 이기는 순종



강원도 삼척으로 아웃리치를 간 강남C공동체가 주민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지만 사용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다. 지체들 모두 각자 맡은 일을 열심히 하시는 모습에서 은혜를 받은 순간들이었다. 하나님은 감당할 만큼의 힘든 일을 허락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신다. 또한 함께 힘을 합쳐 협력하여 일할 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다음날 적노리교회로 이동해 ‘믿음보다 큰 두려움’(막 4:35-41)의 설교 말씀으로 예배를 드렸다. 적노리교회는 1층 건물에 예배실과 부엌이 전부인 이번 교회 중 제일 작은 교회다. 세례교인이 15명도 안 되면 교회가 아니라 기도처라고 하는데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가족

을 제외하면 세 분밖에 안 계셨다. 하지만 따뜻하고 열정 넘치는 목사님과 사모님의 모습에 어느 곳에서 드리는 예배보다 큰 은혜를 느꼈고 후유증 없이 꼭 낮게 해주시리라 믿게 됐다. 이렇게 사람이 드문 먼 곳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열심히 전하시는 목사님들께 큰 은혜를 받았고, 서울 생활에서 느끼지 못하는 온정을 느꼈다. 특히 묵묵히 봉사하신 강남C공동체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을 느낀 감사의 시간이었다.

21기 'JDS KIDS' _ 필리핀



허준서 어린이
(JDS KIDS 21기)

필리핀 아웃리치 출발 두 달 전부터 8주에 걸쳐 안산M센터와 서빙고 온누리교회 누리홀에서 1박2일 동안 훈련을 받았다. 특히 서빙고 온누리교회 신관 3층 드림홀에서 선교사님과 광상학 목사님, 반대섭 목사님의 전신갑주 강의를 듣고 큰 은혜를 받았다. 훈련을 받으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시간 동안 존재하는 이유가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복음전달을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깨달았다. 훈련기간 정해주신 책들을 읽고 독후감을 쓰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했다. 내 삶의 주인이 오직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새삼 배웠다.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 먼저 예수님께 사랑을 받은 내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실 훈련기간에 가끔 친구들과 장난을 치기도 했다. 하지만 모든 강의를 귀 기울여 듣고 훈련을 잘 받은 나에게 칭찬을 해주고 싶다.

처음 가는 해외 아웃리치 생각에 출발 전날 밤 걱정과 두려움이 생겼다. '21기 JDS KIDS 친구들과 어떻게 친해질까?', '내가 사역을 무

사히 마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다. 잠시 필리핀 아웃리치 가는 것을 후회했던 순간도 있었다. 그 고민들은 시간낭비였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주셔서 내가 걱정했던 문제들을 모두 해결해 주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4시간 30분 비행 후에 필리핀 마닐라에 도착했고 5시간 정도 공항에서 대기하다 다시 비행기로 한 시간을 날아 일로일로로 이동했다. 첫 사역지인 안티키학교는 높은 산에 위치하고 있었다. 한 시간 정도 산행을 해서 안티키학교에 도착했다. 우리는 안티키학교에서 어린이사역, 살웅안교회 유치원사역, 일로일로 성결교회 수요예배, 살웅안교회 금요일예배와 주일예배를 드렸다.

배를 타고 들어갔던 비농안안섬에서도 어린이사역을 했다. 준비해 갔던 위식을 선보이면서 필리핀 친구들 앞에서 실수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다. 평소에 부끄러움이 많은 나의 성격을 성령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부끄러움을 없애주셨다. 처음 하는 위십임에도 불구하고 실수를 한 번도 하지 않게 도와주셨다.

우리는 또 필리핀 친구들에게 언어 없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무언극 공연을 했다. 그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 했다. 무엇보다 아웃리치 일정 동안 아픈 친구들이 한 명도 없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

나는 필리핀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가 이야기

겉과 속이 같은 토마토처럼



아웃리치에서 선교사님들의 삶을 경험한 아이들은 예수의 제자가 될 것을 다짐했다.

를 나누고 장난을 주고받을 만큼 친해졌다. 안티키학교 친구들뿐 아니라 21기 JDS KIDS 친구들과도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다. 이번 아웃리치의 주제가 '선교사님의 일정을 직접 경험해 보기'였던 만큼 오진한, 이복자 선교사님 부부를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 축복의 시간이 지금도 생생하다. 필리핀 일로일로 섬의 영혼들을 위해 사역하시는 선교사님과 필리핀에서 만났던 친구들을 위해서 계속 축복기도를 하고 싶다. 반대섭 목사님께서 "한 번의 아웃리치만으로 완벽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아웃리치에서 했던 활동들을 훗날 다 잊어버리게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아웃리치에 다녀온 모두가 하나님께 한 걸음이라도 더 다가가길 바란다"고 하셨던 말씀이 기억났다.

이번 필리핀 아웃리치 이후 내가 완벽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음에도 모른다. 하지만 사과처럼 겉만 빨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겉과 속이 같은 토마토처럼 한결같은 신앙으로 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을 다짐한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유대 사람에게요, 다음으로는 그리스 사람에게입니다." (롬 1:16).

CGNTV 직원 충주



이선미 자매
(CGNTV)

나는 이번 여름 CGNTV 직원 아웃리치 '고향교회 섬김'에 참여하게 되었다. 고향교회 섬김은 농어촌교회 사역을 돕는 일을 하고 있다. 이번에는 충북 충주에 있는 전원교회를 섬

게 되었다.

떠날 때만 해도 얼떨떨했다. 도착하자마자 밀짚모자와 토시를 지급받았다. 그제야 내가 정말 아웃리치 현장에 왔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었다. CGNTV 직원 아웃리치가 실시된 충주 전원교회 한석봉 담임목사님께서 환영인사를 해주셨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논으로 이동했다. 예정대로라면 감자밭에서 감자를 수확해야 했지만 논에서 우리의 손길을 필요로 한다고 했다. 논에 도착하자마자 팀원들이 하나둘씩 양팔과 신발을 벗는 모습을 보고, 먼저 논 안에 들어간 자매들의 비명소리를 들으면서 '이것은 천연머드'라고 최면을 걸었다. 피를 뽑는 방법을 배우고 나서 서툴지만 천천히 제거했다. 많은 인원이 함께했기에 즐거웠고 일을 금방 마칠 수 있었다.

일을 마치고 나오자 논 주인인 집사님이 인사를 하셨다. 피가 너무 많이 자라 농사를 포기

하려고 했는데 우리의 섬김 덕분에 힘을 얻었다고 말씀하셨다. 그 집사님의 말을 듣고 진심으로 물든 내 모습이 자랑스러웠다.

이번에는 감자밭으로 향했다. 평소 하던 일이 아니다보니 많이 미숙했다. 손도 느렸고 호미로 감자를 캐면서 상처를 내기도 했다. 그래도 감자를 캐는 우리를 보면서 어르신들께서 정말 기뻐하셨다.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좋아하시는 어르신들을 보니 더욱 힘이 났다.

마을 어르신들께 미용봉사도 해드렸다. 미용봉사를 준비하면서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기를 기도했다. 그 기도가 응답됐다. 점심식사를 먹기 힘들만큼 바빴다. 지친 몸과 다르게 마음은 벅차올랐다. 어르신들께서는 우리가 염색을 해드리는 내내 고맙다는 표현을 한시도 멈추지 않으셨다. "왜 이제야 왔냐"며 반갑게 역정을 내시는 어르신도 계셨다. 오고가는 인사에서 진심이 묻어났다. 처음 뵈 어르신들이었지만 마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친근하게 느껴졌다. 그 덕분에 마을잔치를 위해 어르신들을 모시러 가는 일이 무척 즐거웠다. 교회 집사님과 함께 어르신을 모시러 가기도 하고, 믿지 않는 어머님들 댁을 방문해서 모셔오기도 했다. 교회에서 하면 안 온다고 하셨던 분들에게서도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마을잔치가 끝나고 아쉬운 마음을 달래기 위해 어르신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했다. 저녁식

더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감자밭에서 붉은 땀방울을 흘리는 CGNTV 임직원들.

사를 하고 나서도 아쉬운 마음이 남아서 다같이 사진을 찍자고 말씀드리니 흔쾌히 찍어주셨다. 귀여운 손 하트와 함께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사진이 생겼다.

아웃리치 마지막 날 주일예배 자리에서 나는 감자밭 주인 할머니 곁에 앉았다. 염색해드리면서 유독 가까워진 분이였다. 그 할머니와 대화를 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게 되었는지 알 수 있었다. 그 할머니는 글을 몰랐는데 교회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한글을 깨우쳤고 그 덕분에 예수님을 영접한지 5년 정도 되었다

고 하셨다. 그 할머니는 내 손을 꼭 붙잡고 기도를 해주셨다. 나지막이 들리는 그 기도소리가 큰 감동을 주었다.

이번 아웃리치에서 많은 분들과 기쁨을 나눌 수 있어 참 감사했다. 또한 메이크업 경험을 살려 미용봉사를 더 전문적으로 준비할 수 있었다. 평소 어르신들에게 특별한 마음이 있었던 만큼 더욱 적극적으로 사랑하며 섬길 수 있었다. 나를 통해서도 선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이유를 다시금 느낄 수 있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독후감 공모전 수상자

두란노서원에서 실시한 이재훈 목사의 저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독후감 공모전에 총 103명이 응모했다. 공정한 심사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다음은 ‘2018 두란노서원 독후감 공모전’ 수상자 명단과 독후감.

작은 예수상(1명)
서장철(8084)

In Christ상(2명)
정옥경(1529)
김고운(7531)

With Christ상(5명)
변성래(5522)
송숙경(4201)
정수진(6461)
황은혜(2789)
박예린(0560)

Like Christ상(20명)
함형기(9990)
이유진(1227)
허인행(3622)
서복주(5902)
안주영(7154)
서승희(2371)

박미진(0223)
김금숙(1207)
조국현(7672)
이한규(0698)
이소연(4678)
이지현(6252)
장선아(3563)

이지선(4492)
최준희(3496)
이은미(2486)
박나영(4513)
하진영(7732)
이현숙(2654)
김하연(9027)

작은 예수상



서장철 성도
(남포교회)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상당히 의미심장한 질문으로 시작하는 책입니다. 평범한 질문 같지만 한 번도 스스로 진지하게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서문에서 본

문으로 넘어가질 못하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교회에 오랜 기간 다닌 신자라면 으레 들어봤을 법한 이 평범한 문장이 결국 이 책이 독자에게 던지고자 하는 핵심질문입니다. 이 책은 독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을 “알고 있느냐”고 묻지 않습니다. “경험하고 있느냐”고 묻습니다.

만약 누가 저에게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에 대해 알고 있느냐”고 묻는다면 이런저런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조 사건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갈보리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령. 그런데 “그래서 당신은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있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뭐라고 답해야 할까요? 자신 있게 그렇다고 대답할까요, 아니면 겸손하게 아직 멀었다고 대답해야 할까요. 어떤 정해진 정답이 있을 거란 생각에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그럴싸한 답을 찾기 위해 책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있는가?’ 스스로 계속해서 묻고 물으며 책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을 경험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자는 어떤 모습인가?’,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자는 어떤 자들인가?’라는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결국 이 책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었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며 제 삶을 있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친절하고 차분한 어조로 흘러가지만, 책의 고비마다 계속해서 독자를 결정적인 순간으로 몰아붙입니다. 인간의 희망 없는 자아(p.160)와 도저히 고쳐 쓸 수 없는 비참한 실상(p.121)을 낱말로 고백하면서, 독자를 십자가 앞에 세웁니다.

이 책에 수록된 20편의 설교에는 공통으로 십자가, 자아, 옛사람, 예수, 변화 등의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이걸 이 책만의 특징이 아니라, 복음을 주제로 한 다른 신앙 서적에서도 당연히 드러나는 특징입니다. 그런데 유독 이 책에서 자주 보이는 독특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항복입니다.

책의 초반부에 신자를 십자가 앞에 세워 자

신의 처절한 실상을 보게 했다면 이후엔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 독자를 다시 갈릴길에 세웁니다. 그대로 세상을 따라 살 것인지 아니면 그리스도 앞에 항복할 것인지를 선택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는 얼핏 모순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바로 앞에서 신자의 비참한 수준을 공개적으로 폭로해 놓고선 그런 절망적인 인간에게 세상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라니요. 죄인 중의 괴수인 자들에게 그것이 가능한 일이란 말입니까? 이 책에선 그런 불가능해 보이는 모순을 넘어서기 위해 세상을 이기는 법을 제시하는 데 놀라게도 그건 바로 세상에 대해 죽는 것(p.77)입니다.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 대해 죽어 승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비참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유일한 승리의 길인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읽으며 말할 수 없이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우리 안에서 만들어 가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세상에 대해 죽은 자가 되어 세상을 사랑하던 자에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로 존재가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책에선 신분의 변화와 양자 됨의 은혜(p.43)로 이를 설명합니다. 이것은 내가 선택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일로 이미 그 일을 이루신 이가 오셔서 우리 삶의 주권을 주장하시며 우리에게 이를 전가해 주시는 것입니다.

조금 난해한 이야기였지만 이재훈 목사님께서 저 같은 평신도를 대상으로 집필하신 말씀 이기에 책의 진도를 따라가며 조금씩 이해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책은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에 대한 이 과정을 다섯 가지 과정으로 나누어 더 깊이 설명해줍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Through Christ), 그리스도와 함께(With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In Christ), 그리스도 아래서(Under Christ), 그리스도처럼(Like Christ).

첫 번째 ‘그리스도를 통하여’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저는 이를 자격과 신분의 문제로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과 자격(p.23)이 부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격을 기쁜 소식으로 받으려면 먼저 죄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나라는 존재에 대한 완전한 절망과 내가 나를 어찌할 수 없다는 존재론적인 절망이 필요합니다. 복음(Gospel)이 어떤 이들에게 복음이 되는가? 과부와 고아와 병자들처럼 나의 끝과 죽음이 더는 절망의 소식이 아니라 오히려 기쁜 소식인 사람들에게 비로소 십자가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

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불완전한 미완성의 상태인 인간이 자신의 노력과 열심, 율법으로도 넘을 수 없는 벽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허무시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십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는 곧 십자가와 부활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는 인간에게 날라 온 십자가의 초청장은 우리를 죽음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죄인인 너는 당장 죽음으로 찢갠을 갠이라 하는 ‘명령’이 아닌,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자는 ‘함께(With)’의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에서 죄인이 ‘그리스도를 통과해’ 칭의를 받았다면 두 번째 메시지에서는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끝장납니다. 함께 죽어버리고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습니다. 즉, 다시 사는 자로 세상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후 이어지는 그리스도와의 동행의 모습을 그려냅니다. 이에 대해 로마서 말씀을 인용해서 상당히 선명한 이미지를 그려주는데 바로 새사람이란, 법이 바뀐 사람(p.114)이라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를 받던 옛사람이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는 새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즉, 내가 사는 나라가 바뀌면 그 나라의 법을 따라 살아야 하듯이 우리는 이제 새로운 나라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복잡한 과정에 대해 놀라우리만큼 또렷한 설명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러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과 동행해야 합니다. 애당초 우리에게 그리스도와의 동행이란 어려운 일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성령을 따라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더는 나를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 아래서’는 결국 우리의 항복을 꾀집어냅니다. 이것은 세상에 대한 욕망이 사라지는 무소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책의 표현대로라면 욕망의 대상이 바뀌는 것(p.158)입니다.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로 자기를 부인(p.160)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옛 자아가 다시 살아나 우리를 공격할 때도 우리는 그리스도 아래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사용한 온전한 항복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아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복종시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처럼’에서는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어떤 삶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닮는 것, 그리스

도와 같이 변화된 삶(p.198)을 이야기합니다. 문자화된 교리로써의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삶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내 노력으로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노력해야 하고, 내 힘으로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유의지를 사용해 항복해야 합니다. 아니 도대체 어쩌라는 건가요?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하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해야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넘어서 삶. 바로 그리스도처럼 사는 삶입니다.

이 책의 첫 질문을 다시 곱씹어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닫으며 첫 질문의 의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임재하심’이란 결국 이 책의 제목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다시 책의 표지로 돌아갔습니다. 처음엔 눈여겨보지 않았던 책의 표지가 이제 저에게겐 전혀 다른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표지를 가만히 들여다보며 벅찬 감동이 느껴졌습니다. 책의 표지엔 아무런 장식도, 미사여구도, 그 흔한 일러스트 하나 없었습니다. 그저 십자가 하나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라는 문장뿐이었습니다.

처음 책을 펼쳐 들며 품었던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는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 삶에 어떤 화려한 사건이나, 자랑할 만한 결과는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저는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생명은 자라나야 한다는 목사님의 마지막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더는 조바심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 이미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여기까지 밖에 오지 못했지만, 오늘 하루만큼의 항복을 더해드릴 때 생명이 자라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드라마 작가이십니다. 너무나도 극적입니다. 최악의 상태에 있던 인간을 전혀 새로운 존재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거하시며 자기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모두 이 놀라운 복음 앞에 무릎 꿇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네, 저는 십자가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In Christ★

정옥경 안수집사
(동작공동체)

책을 읽는 동안 행복했다. 그건 안정감이고 평안이었다. 쉽게 읽혀지는 책은 아니다. 설교 모음집으로 생각하고 가볍게 손에 넣었는데 예상은 틀렸다. 이젠 매뉴얼 북이다. 그리스도

와 온전히 연합하는 방법을 일러주는 자상하고 엄격한 신앙 지침서이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얼마나 익숙한 제목인가. 제목만 보고 어렵잡았던 생각들은 처음부터 빗나갔다. 주제에 맞게 본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시작하고 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생략)”

이건 내가 만만히 암송하던 구절이다. 마음이 힘들거나 벽을 만났을 때 나는 이 말씀을 방망이처럼 휘둘렀다. 그러나 주문처럼 외었을 뿐 말씀의 의미를 특별히 묵상해본 적은 없다. 그러던 것이 본서를 만나면서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 말씀 앞으로 나를 초청하신 것을.

두어 페이지 정도 읽어가던 중이었다. 아직 도입부인데 절망이란 낱말이 눈에 띈다. 그것도 ‘완전한 절망’이다. 이어서 눈에 들어온 건 파산이다. ‘완전하게 파산’이라는 문장 앞에서 한동안 책장을 넘기지 못했다. 절망해라. 실망이 아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되나 하는 실망 정도로는 참된 신앙에 이를 수 없다. 자신의 삶이 영적으로 완전하게 파산된 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값없이 의롭게 되는 기쁨 소식을 들을 수 있다. 회초리 같은 본문이 팽팽하게 나를 당긴다. 절망과 파산! 가슴이 서늘해지는 단어가 여기서는 놀

라운 축복의 언어로 등장하고 있다.

서점 앞에서 독후감 공모라는 배너를 보았을 때 잠시 어리둥절했다. 새삼 독후감 공모라니. 고백하건데 나는 거기에 현혹되어 책과 인연을 맺었다. 그리고 알게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가 올해 우리 교회 표어로 채택된 것과 도서관까지 출판된 이유를 결론부터 말하자면 내가 이 책을 만난 건 크게 수지맞은 일이다. 나는 읽고 있던 책을 미뤄놓고 이 책에만 집중했다. 마지막 페이지를 덮었을 때는 열혈이 지났다. 책 한 권에 열혈이라니. 목적이 있으니 대중 읽을 수는 없었다. 중요한 곳은 연필로 밑줄을 치다 더 중요한 곳은 색연필로 덧칠을 해가며 탐욕스럽게 독서를 하던 중 언제부턴가 밑줄을 긋는 것도 페이지를 넘기는 것도 잊고 있었다.

저자 이재훈 목사님의 저서는 처음이다. 주일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어 서점에 가도 관심 없이 지나쳤다.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책의 첫머리는 질문으로 시작되고 있다. 생각 없이 책장을 열다 찢리는 느낌이었는데 이 예상치 못한 질문은 본문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이었다. 글을 읽는 동안 나는 가끔 망치 소리 같은 걸 느꼈다. 글 속에 투영된 내 영적 모습은 부실공사처럼 엉성하고 위태로워 보였다. 망치 소리, 그건 다시 부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어져가는 소망의 소리였을 것이다.

내게서 가장 먼저 부숴야 할 것은 정죄감이었다. 평안과 기쁨이 내 안에 오래 가지 못하는 것이 정죄감 때문인 걸 알게 되었다. 본서는 정죄에 대하여 특히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우리 속에 거절당한 깊은 상처가 있는 것을. 가정과 사회로부터 받은 거절감은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하는 착각을 일으키게 하며 거기서 정죄가 시작된다는 것이다. 자신을 정죄하는 사람은 자신을 죽이는 것과 같다고 했으니, 정죄가 옳지 못한

값없이 의롭게 되는 기쁨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위험한 것인 줄은 몰랐다. 본문은 로마서 8장 1절 말씀 앞에 나를 세웠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정수이며 우리 인생에 가장 감동적인 선언이라고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인류로 부르셨다는 본문의 선포 앞에서 나를 묶고 있던 사슬이 끊어졌음을 나도 선포한다.

중반부를 넘어 ‘자기 부인’ 편을 읽을 때엔 문장마다 색연필이 따라다녔다. 거기 오래 머물렀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 사람이 죽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기는 것.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에 동의하고 옛 사람에 대해 선포하라는 것이다. ‘나의 옛 사람은 죽었다... 나는 하나님께 대해 산 자다.’ 본문이 가르쳐준 이 선포를 나는 아껴두지 않고 즉각 사용했다. 가끔 알 수 없는 우울을 경험할 때가 있었다. 세상에 대한 욕심은 덜어냈으나 비어진 공간을 주님으로 채우지 못했을 때 그 괴리 속으로 스며드는 공허함 같은 것 말이다. 감정 속으로 숨어들던 아비한 속임수. 나는 거기에도 놓치지 않고 선포했다. 나의 옛사람이 죽은 것을.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그 선포는 매우 효과가 있었다. 삶은 여전히 덜경거렸으나 나는 이전처럼 심각해지지 않았다. 단번에 영적 자신감이 생겼고 기도가 단단해졌다.

248쪽이니 부담되지 않는 두께다. 마지막 장을 덮고 나니 오랜만에 공들여 읽었다는 생각이 든다. 얼마만인가 이런 여운을 경험한 것이. 나는 밑줄 위주로 다시 읽기 시작했다. 사실 밑줄이 지나지 않은 곳은 거의 없다. 다시 읽기를 하면서 더욱 느꼈다. 저자의 영적 해안과 깊이를. 그건 사랑이었다. 독자를 사랑하지 않고는 이런 메시지가 나

올 수 없다. 읽고 난 소감을 하나의 단어로 표현하려면 주저 없이 사랑을 꼽을 것이다.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기 바라는, 목자로서의 간절함이 느껴졌다. 놀라운 분석력과 통찰이 담겼으니 따뜻하고 쉬운 표현법으로, 누구나 이 은혜로운 대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애쓴 흔적이 보인다. 어머니의 마음이다. 덕분에 멀리서 바라보던 목사님과 한상에 마주 앉아 일대일 양육을 받고 난 느낌이다. 책을 읽는 동안 가졌던 안정감은 거기서 온 것이리라. 나는 특히 몇 가지에 주목했다. 처음의 긴장감이 끝까지 유지된 것과 무엇보다 예화가 거의 없다는 점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책 커버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하드커버도 아니고 코팅지도 아닌 무광의 소박한 캔트지 아닌가. 보석 같은 내용을 담아두기에는 너무나 소박한, 눈에 띄는 북 디자인이라고는 책 제목이 전부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고자 하는 저자의 의지와 겸손 앞에서 나는 많은 생각을 했다. 하지만 감동이 더 할수록 소감문 쓰기에 대한 의지는 사라졌다. 이젠 나만 간직해야 했다. 이 특별한 향기를 가슴에 눌러 담고 마개를 꼭 닫아두면, 고스란히 몸속으로 흡수되어 오래도록 내 것이 될 것 같았다. 하지만 순예배 자리에서 책을 읽고 난 소감을 질펀하게 쏟아 놓음으로 입으로 한 번, 손으로 또 한 번 독후감을 두 번 쓴 셈이다.

한 번 읽고 지나칠 책은 결코 아니다. 나는 이 책을 책꽂이에 두지도 않을 것이다. 눈에 띄는 곳에 두고 영적 돌봄을 받고 싶을 때마다 펼쳐보기로 했다. 마지막 장을 덮으며 첫 장의 질문 앞에 다시 선다.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예배 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일이란 얼마나 든든하고 신바람 날까. 기도제목이 그새 또 늘었다.

With Christ★

박에린
(양재 소년부
4학년)

존경하는 이재훈 목사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말괄량이 4학년 박에린입니다. 이 책을 읽게 된 이유는 엄마가 사기만 하고 나보고 읽으라고 해서이기도 하고 또 읽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이 책은 어른 건데 왜 나한테 읽으라는 거지?’라는 불만이 살짝 있었지만 막상 읽기 시작하니 재미있어서 푹 빠져버렸습니다.

“세례란 무엇입니까? 세례를 물로 씻음 받는 것이라고만 생각하면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왜 세례가 우리를 씻는 사건입니까? 이는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못 박혀 죽고 함께 살아가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세례의 원단어는 ‘바티조’인데 이 단어의 원래의 뜻은 ‘물에 잠기다’입니다. 물에 잠긴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물에서 다시 나오는 것은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세례란 죽음과 부활인 것입니다.”

목사님의 이 말씀을 통해 세례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왜 주는 것인지 알게 되어 통쾌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법

목사님! 저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느낀 경험이 있었어요. 무엇이나면 주일학교 2학년 여름캠프를 갔을 때였습니다. 그 때에는 힘든 일이 좀 많아서 마지막 날 기도회 때 정말 많이 울며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딱딱하게 굳었던 제 마음이 크립처럼 부드러워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제 안에 오신 정말 멋진 경험이었어요.

이 책은 저에게 좀 어렵고 읽기 힘든 책인 것 같아 중학생 때 다시 읽으면 이해도 더 잘 되고 더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어려운 책을 4일 만에 읽었다는 자신감도 생겼고 주님께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어 좋았습니다.

또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를 하자면,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라는 책을 저희 언니가 읽고 감상문을 쓰기로 약속했는데 책만 13번 읽고 독후감은 쓰지 않았다고 해요. 저도 좋아하는 책이지만 언니가 좋아해서 많이 읽은 그 책보다 더 어려운 독후감을 쓰는 것만으로도 너무 뿌듯하고 기뻐요.

목사님! 요즘은 날씨가 많이 덥지요? 덥다고 차가운 음식 많이 드시지 마시고 냉방병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또 이런 좋은 책 많이 많이 써 주시고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게 사세요.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특별기고 퀴어 신학에 대한 비판적 성찰(VIII)



김명환 박사

• 기독교학술원장,
• 서울남비 성립대표,
• 숭실대 기독교학
대학원 설립원장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 대학교 교수 케서린 켈러는 포스트페미니즘 논의에서 이를 과정신학적 차원으로 발전시키면서 트랜스페미니즘(transfeminism)을 제창하고 있다. 켈러에 의하여 주도되고 있는 트랜스페미니즘은 이미 유행하고 있는 용어라기보다는 기존의 페미니즘과 포스트페미니즘 담론들 사이에 야기되고 있는 내적 긴장과 갈등을 넘어서기 위한 대안적 전략 모색이라고 볼 수 있다.

제3세대 페미니즘, 전통적 양성(兩性) 구조 허물어뜨림

트랜스페미니즘은 차별받고 억압받는 여성을 해방의 주체로 세우려는 페미니즘(feminism)의 정신을 다시금 강조함과 동시에 여성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소수자들을 함께 품고 나아가야 한다는 포스트페미니즘(postfeminism)의 강조점을 인정한다. 트랜스페미니즘은 다양한 소수자들과 주변화된 사람들과의 연대를 하면서도 여전히 여성 억압의 현실을 망각하지 않는다. 현재 트랜스페미니즘은 바로 페미니즘과 포스트페미니즘의 관계에 대한 문제인식이며, 이에 대한 대안적 사유를 도모하는 중이다.

케서린 켈러(Catherine Keller)가 제안하는 트랜스페미니즘(transfeminism)은 주디스 버틀러(Judith Butler)가 사회학적으로 규정한 젠더 개념을 포괄하면서 퀴어이론과 연결되며, 해방신학을 수용하면서 모든 사회적 약자와 피억압자의 연대를 추구한다. 이 점에서 있어서 그녀의 트랜스페미니즘은 성소수자(LGBT)를 포함하면서 더 나아가 동성물을 포함하여 전 지구 생태계의 해방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켈러의 트랜스페미니즘은 여성해방의 범위를 넘어서 모든 종류의 사회적 약자와 피억압자의 해방 뿐 아니라 성소수자와 성다수자의 구분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든다. 성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적 사상에 있어서 주류와 비주류의 경계 자체를 무너뜨리고 더 나아가 배제의 논리를 불가피하게 담지하는 정체성 구분 논리 자체를 해체하고자 한다. 이런 의미에서 매우 급진적 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트랜스페미니즘, 부정신학적 요소 담지

켈러의 트랜스페미니즘의 사상적 배경은 화이트헤드의 과정철학과 후기 구조주의 해체철학에 근거하고 있으며, 기독교 신비주의 전통과 연결되는 부정신학(apophatic theology)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녀가 제시하는 트랜스페미니즘은 상당 부분 데리다를 공통분모로 하여 버틀러의 해체 논리와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다른 사상을 곧 양자(量子) 얽힘(quantum entanglement), 화이트헤드의 과정철학에 근거한 과정신학(process theology)과 니콜라우스 쿠자(Nicholas of Cusa)의 중세 신비주의 부정신학(apophatic theology), 케런 바라드(Karan Barad)의 신유물론(new materialism) 등으로부터 그 사상적 단초들을 모아 또 다른 이론적 토대를 구성하고 있는 제3세대 페미니즘이다.

이러한 제3세대의 페미니즘은 전통적 사회적 가정의 기본인 생물학적 성을 부정하고 남성이 여성으로, 여성이 남성으로 되어감을 말함으로써 젠더주의가 말하는 사회적 성을 수용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성을 생물학적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 과정철학적 생성 관념에서 이해함으로써 남성과 여성의 존재론적 상호 얽힘을 주장함으로써 남성과 여성으로 된 전통적인 양성(兩性) 구조를 허물어뜨리고 있다.

과정신학, 부정신학, 신유물론

켈러의 트랜스페미니즘은 과정신학, 부정신학, 신유물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 양자역학, 신비주의 및 젠더주의가 자리 잡고 있다. 켈러는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 이하 입자들의 이러한 상호 얽힘의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는 ‘과정신학의 관계적 우주론(relational cosmology of process theology)’ 또는 ‘과정우주론(process cosmology)’을 제시한다. 이 견해는 모든 것을 존재(Being)가 아니라 되어감(becoming) 즉 과정(process)으로 이해하는 화이트헤드(Alfred North Whitehead)의 유기체 철학 사상에 근거한다. 켈러에 의하면 이 우주는 무한한 미완성의 상호활동성(interactivity) 가운데 우리 자신의 구성적 관계성(constituent relationality) 속에서 펼쳐진다.

켈러는 양자 얽힘 관념으로서 세계 만물을 이해하고자 한다. 이 관념은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상호 내재성(mutual immanence)’과 ‘신비적 얽힘(apophatic entanglement)’을 주장하는 하나의 근거를 제공한다. 이 관념은 관찰자와 관찰대상 즉 주체와 객체가 서로 어울려 하나로 얽혀지는 현상을 뜻한다. 그리고 관찰도구들을 통해 이 얽힘 현상을 관찰하는 동시에 이 도구들이 현상에 함께 연결되어져서 복합적인 얽힘 현상을 만들어 낸다. 이러한 기이한 현상은 이전 근대 과학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현상이다. 양자 얽힘(quantum entanglement)은 다른 말로는 양자(量子)의 비장소

성(nonlocality), 불가분리성(nonseparability) 등으로도 알려져 있는 현상이다. 얽힘(entanglement)이란 서로 상호작용했던 전자(electron)와 같은 두 입자들이 서로 멀리 떨어진 뒤에도 모종의 특별한 관계 유지 현상을 말한다.

그러하여 물리학의 상식을 갠으로써 모더니티(modernity) 자체를 허물어버리는 입자들의 신비한 특성을 말한다. 켈러는 장소를 확정할 수 없으며 분리될 수 없는 양자의 상호 얽힘 현상을 과정신학과 부정신학에 밀접하게 연결시키고 있다.

이러한 켈러의 상호 얽힘의 과정우주론은 끊임없는 생성 속에 있는 우주를 밝히는 설명이긴 하나 우주과정을 하나의 유기체적인 신으로 간주함으로써 하나님과 우주를 혼동시키고 있다. 우주는 하나의 살아 있는 자연으로서 상호연결되고 얽힘 속에 있다는 것은 상호의 존격이라고 말할 수 있으나 존재적 가치가 무차별적으로 동일하다고 간주할 수는 없다. 켈러의 과정 우주론은 모든 존재의 연속성만을 강조함으로써 존재 간의 불연속성을 간과하고 있다. 이러한 존재 이해는 진화론을 옹호하는 이론은 되나 성경적 창조론을 지지하고 있지 않다.

켈러의 과정 우주론은 만물이 각 존재 간의 관계를 지나는 우주라는 존재를 이루는 다양한 종(種)을 부정하고 있다. 성경은 우주가 테호ם(tehom)이라는 원시적 존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무로부터의 창조된 피조물이고 모든 것을 동일하게 지으시지 않고 모든 존재에 한계를 정하시고 그 종류대로 지으셨다고 증명하고 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창 1:11).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창 1:21).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창 1:24).

창세기는 식물을 그 종류대로 모든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지으셨다고 말하고 있다. 지구는 생태 공동체로서 서로 연관되어 있으나 식물과 동물, 인간은 그 종류가 다르다. 식물과 동물,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천지와 물들을 창조하셨다. 하늘과 땅, 바다는 서로 다른 물체이며 그 가운데 식물, 동물, 인간은 서로 다르며 한 종이 다른 종으로 진화하지 않고 종 안에서 서로 교류하고 발전하는 것이다. 식물 안에도 다양한 종들이 있으며, 동물 안에도 다양한 종들이 있다. 인간 안에도 다양한 종들이 있다. 켈러의 과정 우주론에서는 우주라는 과정적인 현상은 이전 근대 과학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현상이다. 양자 얽힘(quantum entanglement)은 다른 말로는 양자(量子)의 비장소

신비주의에 빠지고 있다. 이러한 켈러의 사상은 성경적 창조적 존재론에 배치되고 있다.

신비주의적 부정신학

켈러는 저서 〈불가능성의 구름〉(Cloud of the Impossible)에서 부정신학(apophatic theology)의 신 이해를 ‘시(詩)적 신학(theopoiesis)’으로 제시한다. 이 저서에서 켈러는 고대 카파도키아 교부 그레고리 1세의 사상으로 부터 중세 초기의 위 디오니시우스, 신플라톤주의 그리고 무명의 신비주의 작가의 저서 〈무지성의 구름(Cloud of Unknowing)〉과 니콜라우스 쿠자에 이르기까지의 낯선 부정신학 전통의 논의를 추적한다. 켈러는 ‘신비롭게 빛나는 어둠(luminous dark)’과 ‘무지성의 구름(cloud of unknowing)’, ‘접힘과 펼침의 신(enfolding and unfolding God)’ 등의 다양한 은유들을 통해 하나님의 불가해성을 계속 시작 언어로 설명한다. 신비적 얽힘(apophatic entanglement)은 구름이란 은유로 표상된다. 켈러의 부정신학적 설명의 기본 틀을 제공하는 것은 들뢰즈가 차용하는 라이프니츠의 ‘주름’ 혹은 ‘접힘(the fold)’이라는 개념이다. 이 개념은 본래 물체와 정신의 관계에 대해 일원론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켈러에 의하면 한계 지워질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을 니콜라우스 쿠자가 무한(infinitum)이라 명명할 때 이것은 우주의 무한한 다점성 가운데 그 하나님의 접힘점(enfold, complicate)과 펼침점(unfold, explicate)에 따라 역사적으로 나타난다고 본다.

켈러의 저서 〈불가능성의 구름〉은 3부로 이루어져 있는데 복잡(complication), 전개(explication) 그리고 의미(implication)의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여기서 켈러의 부정신학이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특정된 실체로 간주하고 말하는 기독교 전통의 신학적 언어가 가지는 지배적 권력에 대항하여 하나님의 신비(Mystery)와 흑암(Darkness)을 강조한다. 그럼으로써 켈러는 하나님 체험에 대한 모든 확실성을 뒤엎는 부정신학을 작업한다.

켈러는 특별히 니콜라우스 쿠자에에서 ‘무지의 교사(doctor ignorantia)’ 또는 ‘아는 무지(knowing ignorance)’라는 개념을 취하여 “신비는 지배를 좌절시킨다”라고 피력하면서 해체작업을 한다. 이러한 켈러의 부정신학은 성경적 신 개념에 적합하지 않다. 하나님은 비록 초월적 숨어계시는 존재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기 드러내심에 의하여 그의 불가지성은 극복된다. 사도 요한은 숨어계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드러내심에 관하여 증언하고 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요 1:18).

성경의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계셔서 본 사람이 없었으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셨다. 사도 요한은 그의 신신에서도 다음같이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요일 1:1).

하나님은 신비와 흑암 속의 존재이긴 하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듣고 보고 만지고 이해하고 느끼는 존재임을 증언하고 있다. 그런데 켈러의 부정신학은 성경이 증언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긍정적 신학의 차원을 도외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부정신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긍정신학으로 대체되는 것이 정통 기독교 신 이해의 바른 길이다.

신유물론으로서 상호육화(相互肉化)론

켈러는 양자역학의 신비하고도 상식을 뛰어넘는 발견들을 반영한 화이트헤드의 유기체 철학과 오늘날의 유물론을 함께 묶어서 기독교 신학적 반성의 자료들로 삼아 기독교적 유물론의 한 형태인 신유물론(new materialism)을 제시한다. 신유물론의 시각에서 보면 우리는 단순히 물질과 얽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물질화(materialization)는 다른 물질화와 얽혀 있다. 이 신유물론은 화이트헤드, 들뢰즈, 가타리, 스탠더 등에 영향을 받아 과거 유물론의 부작용으로부터 물질성을 회복하고자 한다. 특히 바라드(Karan Barad)가 보다 강조하는 개념은 진인 행위(intra-action)이다. 이 개념은 사물들이 있어서 상호작용(interaction)한다는 기존 개념을 대체하면서 모든 물질화 과정에 필연적인 진인 행위를 강조한다. 이 진인 행위의 대행위(agent)는 인간이나 개인이 아니라 모든 물질들이 상호(相互)간 교환하고 분산하고 영향을 주고받는 힘들의 역동성이다. 켈러에 의하면 물질화 과정에 이러한 진인 행위를 이해하게 되면 사물간의 절대적 분리나 전통적으로 이해된 객체 개념이 불가능해진다. 사물은 항상 다점적으로, 접합적으로, 혼합적으로 그야말로 진인행위들과 복잡성들로 존재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켈러는 양자역학에 근거한 신비한 물질성(apophatic matter)을 담지 할 수 있는 관계적 상호육화(relational intercameration)의 비전을 고려하는 ‘다수성(multiplicity)’이다. 켈러의 트랜스페미니즘은 모든 개개의 고정된 정체성 개념을 부정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무한하게 상호 얽힘의 관계성 안에 있는 상호교차성(intersectionality)으로 존재한다고 본다. 이 양자(量子) 얽힘은 다른 말로는 양자(量子)의 비장소성(nonlocality), 불가분리성(nonseparability) 등으로도 알려져 있는 현상으로 물리학의 상식을 깨는 입자(粒子)들의 신비한 특성을 말한다. 켈러는 이런 차원에서

모든 여성의 경험을 넘어 모든 종류의 약자 및 주변인들과 성소수자들의 연대성 뿐 아니라 가능한 모든 존재와의 상호연결성을 천명하였다. 트랜스페미니즘은 남성도 여성도 아닌 제3의 성, 간성(intersexual)과 무성애자(Asexual)를 포함하며(LGBTQIA), 나아가 모든 종류의 해방운동을 아우르면서 상호적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얽혀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트랜스페미니즘은 이러한 상호 얽힘의 관계 속에서 모든 여성의 경험을 넘어 모든 종류의 약자 및 주변인들과 성소수자들의 연대성뿐만 아니라 가능한 모든 존재와의 상호 연결성을 말하고 있다. 켈러는 모든 존재의 상호 얽힘과 상호교차성을 다음같이 피력한다.

모든 존재하는 것들과의 의식적 연결과 지혜는 너무 크고, 진리는 너무 다층적(manifold)이다. 이 장(field) 안에서 상호교차성은 서로가 십자로처럼 교차되는 것일 뿐 아니라 서로의 삶이 구성 요소 안에 참여함으로써 하나의 동시적 상호 관계성의 밀도(density)로서 꽃 피어난다. 따라서 트랜스페미니즘은 여성신학의 차원을 넘어 관계적이고, 다원적이고, 해체적인 과정신학, 부정신학 그리고 ‘시(詩)적 신학(theopoetics)’을 추구하는 매우 급진적인 사상이다. 지속적 변화를 위한 트랜스페미니즘은 젠더(gender, 사회학적 성) 개념과 얽히면서(entangled) 인종, 경제, 생태계 그리고 가장 내밀한 성(sex)과 관련된 LGBTQ(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Queer)운동 모두를 포괄한다. 이러한 과정신학의 모든 존재의 상호 얽힘과 상호교차성 사상은 동성애적 성 개념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만물의 상호 얽힘과 상호교차성 사상은 고전적인 만물의 고정성과 무연결성 사상을 과정 철학적으로 극복하는 것으로서 끊임없이 생성하는 우주를 설명하는 자연신학적 이론으로서 공헌하고 있다.

만물의 상호 얽힘과 상호교차성은 성경적으로 정초된 우주론과 배치

트랜스페미니즘이 삶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와 관계될 때 ‘트랜스페미니스트 여성신학(transfeminist version of feminist theology)’으로 작동한다. 이 때 세 가지 빠뜨릴 수 없는 기준이 있다. 첫째 기준은 가장 내밀한 것에서부터 무한에까지 모든 것을 연결하는 ‘얽힘(entanglement)’이다. 둘째 기준은 무지성(不知性, unknowing)으로서 무지에서부터 지혜까지 확장되는 ‘불가지적 불확실성(apophatic uncertainty)’이다. 셋째 기준은 정통주의에서 다원주의까지 가로지르는 다층적 진리를 고려하는 ‘다수성(multiplicity)’이다. 켈러의 트랜스페미니즘은 모든 개개의 고정된 정체성 개념을 부정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무한하게 상호 얽힘의 관계성 안에 있는 상호교차성(intersectionality)으로 존재한다고 본다. 이 양자(量子) 얽힘은 다른 말로는 양자(量子)의 비장소성(nonlocality), 불가분리성(nonseparability) 등으로도 알려져 있는 현상으로 물리학의 상식을 깨는 입자(粒子)들의 신비한 특성을 말한다. 켈러는 이런 차원에서

모든 여성의 경험을 넘어 모든 종류의 약자 및 주변인들과 성소수자들의 연대성 뿐 아니라 가능한 모든 존재와의 상호연결성을 천명하였다. 트랜스페미니즘은 남성도 여성도 아닌 제3의 성, 간성(intersexual)과 무성애자(Asexual)를 포함하며(LGBTQIA), 나아가 모든 종류의 해방운동을 아우르면서 상호적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얽혀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트랜스페미니즘은 이러한 상호 얽힘의 관계 속에서 모든 여성의 경험을 넘어 모든 종류의 약자 및 주변인들과 성소수자들의 연대성뿐만 아니라 가능한 모든 존재와의 상호 연결성을 말하고 있다. 켈러는 모든 존재의 상호 얽힘과 상호교차성을 다음같이 피력한다.

모든 존재하는 것들과의 의식적 연결과 지혜는 너무 크고, 진리는 너무 다층적(manifold)이다. 이 장(field) 안에서 상호교차성은 서로가 십자로처럼 교차되는 것일 뿐 아니라 서로의 삶이 구성 요소 안에 참여함으로써 하나의 동시적 상호 관계성의 밀도(density)로서 꽃 피어난다. 따라서 트랜스페미니즘은 여성신학의 차원을 넘어 관계적이고, 다원적이고, 해체적인 과정신학, 부정신학 그리고 ‘시(詩)적 신학(theopoetics)’을 추구하는 매우 급진적인 사상이다. 지속적 변화를 위한 트랜스페미니즘은 젠더(gender, 사회학적 성) 개념과 얽히면서(entangled) 인종, 경제, 생태계 그리고 가장 내밀한 성(sex)과 관련된 LGBTQ(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Queer)운동 모두를 포괄한다. 이러한 과정신학의 모든 존재의 상호 얽힘과 상호교차성 사상은 동성애적 성 개념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만물의 상호 얽힘과 상호교차성 사상은 고전적인 만물의 고정성과 무연결성 사상을 과정 철학적으로 극복하는 것으로서 끊임없이 생성하는 우주를 설명하는 자연신학적 이론으로서 공헌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상은 성경적으로 정초된 우주론과 배치되기 때문에 정통개혁신학으로서는 그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성경적 우주론은 테호ם에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창조론에서 비로소 바르게 설명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성경적 우주론의 테두리를 잘 묘사하고 있다.

“그러한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나나 세베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극 것이나 장래 것이나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고린 3:21-23).

사도 바울의 증언에 의하면 인간은 만물과 단지 상호연결되고 교차적인 존재임을 넘어선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으로서 인간은 만물과 동일시될 수 없다. 인간은 만물의 창치기로서 만물을 지키는 자다. 인간은 그리스도에 의하여 구속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지야 한다.

인간의 존재는 천사보다 귀한 존재

켈러의 과정우주론이 제시하는 ‘모든 존재의 상호 얽힘과 상호 교차성’ 사상은 정통개혁신학은 수용할 수 없는 사상이다. 왜냐하면 이 사상은 성경이 제시하는 남성과 여성, 남컷과 수컷의 성적 이원성을 허물어뜨리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든 존재의 상호 얽힘과 상호교차성 사상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의 존엄성을 무너뜨린다. 인간 존재의 본성이 존재 본성적으로 아메바나 지렁이나 곤충이나 짐승과 다름이 없다고 보기에 이른다. 인간 존재를 원시존재로부터 진화한 고등 존재에 불과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 존재의 본성이란 하나님 보다 조금 못하게 지음을 받은 천사보다 귀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다. 시편 기자는 8편에서 창조주의 지음을 받은 인간성의 위대한 현장을 노래하고 있다.

“사람이 무엇인가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인가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 그가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시 8:4-5).

하나님은 인간에게 다른 만물과는 달리 영광과 존귀와 위엄을 부여하셨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임하시나이다”(시 21:5).

하나님은 인간을 만물과 상호 얽힘의 존재로 만드시지 않고 만물을 다스리고 만물을 돌보고 지키는 창치기로 영원히 역할을 하는 만물의 영장으로 지으셨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시 8:3).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시 8:6).

성경은 만물의 창치기인 인간이 불순종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징벌 받음으로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다고 말한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 까닭은 너로 땅이 땅이 되리라”(창 3:17a). “땅이 네게 가시되 불과 영귀를 낼 것이라”(창 3:18a).

이 구절은 만물은 상호 얽힘이나 교차가 아니라 영장인 인간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피조물의 씌어짐의 종노릇을 언급하고 있다.

“피조물이 아무런 대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롬 8:20).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이 씌어짐의 종 노릇 한 데서”(롬 8:21a).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롬 8:22).



지난 7월 10일 로그온사역팀이 주최하는 가로수 워십에서.

로그온, 'Summer IT Festa 가로수 워십' 개최

7월 31일까지 ... IT선교 관심 있는 성도 대상

로그온사역팀이 개최하는 'Summer IT Festa 가로수 워십'이 지난 7월 10일(화) 옐로이벤 빌딩 지하 2층(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10길 43)에서 막 올랐다. Summer IT Festa 가로수 워십은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IT선교를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한 강연이다.

이날 Summer IT Festa 가로수 워십에서는 최성석 목사가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한 삶'을 주제로 설교했다. 최 목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가정, 직장, 공동체에서 누리길 바란다"고 축복했다.

이어 이호수 사장(SK텔레콤)이 'ICT(정보기술과 통신기술을 합한 용어) 기술진화와 선교'를 주제로 강의했다. 이 사장은 "IT기술의 발전은 선교에 엄청난 영향을 줄 것"이라며 "많은 기독교 IT인들이 교회 운영과 선교에 필요한 IT기술을 개발하는데 매진해줄 것"을 권면했다.

이호수 사장은 채팅로봇(Chatbot)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사장은 "채팅로봇 개발은 일상생활의 편의뿐만 아니라 선교전략을 구축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경아 성도(한강공동체)는 "이번 강연을 통해서 IT선교가 차세대의 교육과 신앙에 큰 도움이 될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Summer IT Festa 가로수 워십은 7월 31일까지 매주 화요일마다 진행된다. 7월 17일 박대수 전무(KT CR부문장) 'KT 5G 서비스와 ICT 기술로 인한 분야별 변화', 7월 24일 김경훈 전무(구글코리아) 'IT종사자들의 고민 상담 토의'를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7월 31일에는 CCM 사역자 김만희(그룹 축복의 사람)가 '한여름 밤의 가로수 콘서트'를 주제로 무대를 꾸민다. IT선교에 관심 있는 성도라면 누구든지 참석할 수 있다.

문의: 02-3215-3651

/ 권한송 기자 kcs123@onnuri.org

한 주도 빠짐없이 '1다락방 1사역'

서초D공동체, 매주 화요일 '우리들학교' 서 식사봉사

지난 7월 10일, 서초D공동체 B다락방 성도들이 '우리들학교'에서 식사봉사를 했다. 우리들학교는 탈북민들을 위한 대안학교이다.

서초D공동체는 2016년 3월부터 우리들학교를 '1다락방 1사역'로 삼고 매주 화요일마다 한 주도 빠짐없이 찾아가 50여 명의 새터민 학생들에게 식사봉사를 이어오고 있다.

우리들학교 김규리 교사는 "매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식사봉사를 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온누리교회 서초D공동체 성도님들의 큰 사랑 나눔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 권한송 기자 kcs123@onnuri.org

양재, 서초 소방서와 소방안전교육 실시

교역자, 간사, 재단, 트리니티 직원 등 90여 명 참석

지난 10일 양재 온누리교회가 서초 소방서 구조대와 함께 기쁨을 함께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소방안전교육에는 양재 온누리교회 교역자, 간사, 재단직원, 트리니티 직원 등 9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소방안전교육에서는 강의와 실습이 병행됐다. 서초 소방서 홍보과 안전교육팀 계윤정 대원이 심폐소생술에 대해 강의했고 실습도 이어졌다.

계윤정 대원은 "1년 동안 심정지로 사망한 사람이 2만9천명이나 될 정도로 많은데 그 대상이 내 가족이 될 수도 있다"면서 "심폐소생술을 미리 익혀두기만 하면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에 참가한 선교재단 직원 조윤희 성도는 "이번 교육을 통해 심정지 환자를 만나면 도움을 줄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했다.

김은정 간사(차세대)는 "막상 심폐소생술 교육을 직접 해보니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고, 응급환자를 만나게 되면 나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148기 두란노 아버지학교 개강

148기 두란노 아버지학교가 7월 21일 토요일 오후 4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한동홀에서 개강한다. '아버지의 영향력', '아버지의 남성', '아버지의 사명', '아버지의 영성', '아버지와 가정'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참가신청은 7월 19일까지 두란노 아버지학교 홈페이지,

iSchool, 전화(010-8936-0382)로 하면 된다. 회비는 12만원이다. 두란노 아버지학교에서는 성경적인 자녀 교육법과 부부 사랑법을 가르쳐준다.

홈페이지: www.father.or.kr

문의: 010-8936-0382

010-4215-5837

회복사역, 내적치유학교 참가자 모집

8월 3일부터 5일까지 Acts29비전빌리지

온누리 회복사역본부에서 제56기 온누리 내적치유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8월 3일부터 5일까지 Acts29비전빌리지에서 진행한다. 마음의 회복을 얻고 싶은 성도라면 누구든지 참석할 수 있다.

참가신청은 아이스쿨이나 전화로 하면 된다. 선착순 80명을 모집한다. 회비는 12만원이다. 오늘(15일)까지 신청하면 2만원 할인해 준다.

내적치유학교에서는 '내적치유와 상처', '역기능 가정의 치유와 회복', '학대와 수치심의 치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알기', '용서', '십자가와 십자가 의식', '기쁨의 회복'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강사는 이기원 목사(회복사역본부장), 허철 전도사(내적치유 전문강사), 최용준 목사(회복예배 담당), 이찬우 목사(내적치유학교 담당)이다.

문의: 010-6330-7634

평택 파워웨이브, 후원 바자회

평택 온누리교회 파워웨이브가 여름 이웃치 후원회 위한 바자회를 오늘(15일) 오전 11시 30분과 오후 1시 분관 2층에서 개최한다.

나요한 전도사(평택 차세대)는 "차세대들이 이번 바자회를 준비하면서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방법도 함께 배웠다"고 말했다.

양재 새가족 만남의 잔치

일시: 7월 22일(주일) / 시간: 오후 3:30
장소: 양재 드림홀 / 대상: 6월 3일~7월 7일 등록 성도

강남B 신원선 윤지윤 이현숙 최병호	도곡 김순재	분당B 김동식 김설희 민혜경 이중현 이태희	서초A 김덕현	서초C 박경선 신상희 조수현 조호근	송파 최성숙 조윤정 안외순	양재 강인숙 김가은 김명옥 박신영 유양우	윤재화 조미연 채혜선	신아영 조재원
	분당A 김혜란 이관섭		서초B 이경민				푸른누리 문진우	

회복사역, 관계기술 세미나 개최

참된 정체성, 기쁨의 정체성, 회복탄력 정체성

지난 7월 6일부터 8일까지 서빙고 온누리교회와 Acts29비전빌리지에서 관계기술 세미나가 개최됐다.

관계기술 세미나는 3개의 트랙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트랙 0은 Amy Brown 강사(Thrive Today)가 '참된 정체성'을, 트랙 1은 이기원 목사(온누리교회)가 '기쁨의 정체성'을, 트랙 2는 Chris M. Coursey 목사

(Thrive Today대표)가 '회복탄력 정체성'을 주제로 각각 강의했다.

이기원 목사는 "이번 관계기술 세미나에서 배운 것처럼 마음에 고통이 있을 때 가까운 사람들과 감사한 일을 함께 나누기를 바란다"고 권면했다.

/ 권한송 기자

로그온사역팀 스태프 간증



/ 이경희 사역자(Logon사역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포털 사이트에서 ‘기독교’를 검색해 보면 부정적인 정보를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왜 이런 정보들이 인터넷 상에 차고 넘치는 것일까? 이단이나 안티 크리스천들이 기독교에 대한 거짓 정보를 올리고 검색 순위에 오르도록 조직적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교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또 내가 온라인 상에서 교회를 위해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지를 곰곰이 생각해봤다. 그러던 중에 온누리교회 ‘로그온(Logon)사역팀’을 알게 됐다.

로그온사역팀은 온누리교회 IT인들을 위한 모임이다. 하지만 나는 IT업종에서 전문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처음 로그온사역팀에 왔을 때 내가 엉뚱한 곳에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기도 했다.

사역 초반에는 교회와 전도를 위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크리스천 플랫폼을 만드는 등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몇 년 동안 이러한 꿈들이 얼마나 부질없는지를 알게 됐다. 다른 직업인들과 마찬가지로 IT인들은 밤을 새고 주말까지 일하는 경우가 많다. 함께 일하기보다 혼자 일하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사역을 위해 모이는 것이 쉽지 않았다. 우리가 계획한 사역들은 협력해야 할 수 있는데 모임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매우 걱정됐다. 어느 순간 팀원들이 서서히 지쳐가기 시작했다.

다른 신생 사역팀처럼 우리도 수없이 모였다 흠어지고 다시 모이는 아픈 시간들을 통과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진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생각이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콘텐츠나 기술개발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다. 분주한 삶에 지쳐 있는 IT인들이 상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유일한 것임을 알게 됐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기를 원하셨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IT분야에 흘려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IT인들은 하나님과 더 가까이 소통하고, 삶 속에서 그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걸어갈 길을 보여 주시고 직접 이끌어 주실 것이다.

문의: 02-3215-3651

인천 대학청년부 순장 간증



/ 정민송 자매(인천 온누리교회)

하나님께 두려움을 맡기다

나는 인천 온누리교회 대학부 순장으로 섬기고 있다. 대학교 선교단체에서도 캠퍼스 대표로 섬기고 있다. 두 가지 사역을 같이 하다 보니 지칠 때가 많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말씀으로 나를 위로해 주셨다.

“주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정신이 없구나.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눅 10:41-42).

지금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일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마르다처럼 많은 일을 하려 하지 않고, 마리아처럼 좋은 것을 선택하면 절대 빼앗기지 않을 것을 얻게 된다. 그것은 말씀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과의 교제다. 이 진리가 깨달아지면서 바쁜 일상 가운데에도 말씀을 놓지 않고 예배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걱정하던 일들이 하나씩 해결되었다. 순모임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선교단체에서도 내가 계획한 것들을 내려놓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해주셨다.

나는 리더로서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다. 큰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하고 조그만 일에도 조금

해한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나아갔더니 부족한 나를 통해서 큰일을 행하셨다. 그래서 이번 여름 인천 온누리교회 대학부 국내 아웃리치 팀장 자리를 제안 받았을 때 두려운 마음을 주님께 맡기며 열심히 섬기겠다고 결단했다. 내가 하려고 하면 당연히 잘 해내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따라가면 모든 것이 하나님 뜻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다. 분주한 일상과 아웃리치 준비 기간이 겹칠까봐 조금은 힘들었지만 기도로 주님께 은혜를 구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감당할만한 새 힘을 주셨다.

어느 순간 또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가 있다. 그때 또다시 일이 잘 진행되지 않는 것을 느낀다. 하지만 “주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또 교만해서 제가 하려고 했네요”라고 고백하면 거짓말처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한다.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불완전한 우리의 자원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완전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인간적인 두려움이 완전히 없어지는 않아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길 것이다. 우리 모두 완전하신 하나님께 모든 두려움을 맡기길 소망한다.

야베스맘예배(사별자 위한 예배공동체) 스태프 간증



/ 정종희 팀장(야베스맘예배)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다

나는 30살에 처음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다. 그전까지는 독실한 불교신자였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것은 주변 사람들의 영향이 컸다. 당시 나는 경상북도 포항에서 교편을 잡고 있었는데 동료들이 대부분 크리스천이었다. 그들은 하나같이 성실하고 좋은 사람들이었다. 나는 복음을 삶으로 보여준 사람들의 권유로 교회에 발을 내딛기 시작했다.

예수님을 믿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별하게 됐다. 그때 내 나이 34살이었다.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다. 시대와 친정 모두 믿는 집안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아픔을 주셨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러나 지금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 아픔과 슬픔이 있어서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었고, 나와 동일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사별이라는 아픔과 상처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자원이 되었다.

자녀들이 어느새 성장해서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직장생활을 시작했다. 아이들은 온누리교회에 다니고 있었다. 나는 직장을 퇴직

하고 더 이상 포항에 있을 이유가 없었다. 그래서 서울로 올라와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기 시작했다. 자연스럽게 아이들과 함께 온누리교회에 출석하게 됐다.

온누리교회는 타교회와 많이 달랐다.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는 아픔을 공유하고 나누지 못했고 혼자 처리하곤 했다. 하지만 온누리교회에서는 저마다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의 상처를 위로하고 있었다.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보였다. 어느 날 예배 시간 광고를 통해서 야베스맘예배를 알게 됐다. 그 곳에서 만난 사람들과 교제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다.

야베스맘예배는 매주 화요일에 드린다. 오후 6시에 모여 식사교제를 한 다음 오후 7시부터 9시 30분까지 예배와 나눔을 한다.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서로의 허전한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고 있다. 외부에서도 많은 분들이 참석하고 있다. 야베스맘예배에 더 많은 사별자들이 참석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문의: 010-9391-7997

181기 온누리 순장학교 수료 간증



/ 박혜연 성도(특별한초대공동체)

살롬의 향기

어느 순간 내가 드리는 예배에 문제가 생겼다. 마치 영적으로 사망선고를 받은 환자처럼 느껴졌다. 나는 10년 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다. 그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매우 큰 감격이었고 기쁨이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있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러자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커 보였다.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가 잘 되지 않았다. 그러던 중에 181기 순장학교에 입학했다.

하나님은 순장학교를 통해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막혀있던 벽을 헐어주셨다. 한 번도 나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 연약한 믿음으로 진리를 보지 못하고 스스로 버거워했던 내 모습을 회개했다. 상황은 그대로지만 하나님이 나와 공감하시고 소통하심을 깨달았더니 그 사실만으로 기뻐했다. 그렇게 회복을 꿈꾸기 시작했다.

매 주일 그냥 가서 들으면 되는 순장학교 강의 내게는 전쟁이었다. 그러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앉히셨다. 그

리고 거침없이 환영해주셨다. 순장학교를 다녀가면 그 생기로 한 주를 버틸 수 있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아웃리치 준비 과정과 현장에도 계셨다. 수술을 마무려 아웃리치를 진행해온 터라 일정을 소화하지 못할까 염려와 걱정이 한 가득이었는데 귀한 순장님들이 함께해주셨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니 나의 짐이 한결 가벼워졌다.

받은 은혜를 나누고 있지만 마음 한 구석에는 걱정과 주저함이 있다. 내가 백 마디 말을 쏟아내도 해도 그것이 삶으로 전해지지 않는다면 나는 시끄럽게 울리는 팽과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시 주님 앞에 겸손히 은혜를 구한다. 내가 걸어왔고 지금도 걷고 있는 이 과정들이 살롬의 향기가 되기를 바란다.

귀한 시간동안 서로 공감하고 응원했던 181기 (예비)순장님, 간사님, 목사님께 감사하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곳에서 외치던 구호 “순심김을 순종과 사랑으로”를 살아내기를 기도한다.

장로칼럼

비록 우리는 작고 미약하지만...



최주관 장로
(성북공동체, 새사람사역팀)

나는 올해부터 재소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새사람사역팀’을 담당하게 됐다. 새사람사역은 8개 교도소에서 예배뿐만 아니라 일대일 제자양육, 큐티, 공감인성, 멘토링, 자매사역, 구역장세미나, 창조과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은혜 가운데 팀장을 중심으로 각각의 사역들이 성실하게 진행되고 있다.

새사람사역팀에서 가장 많은 사역자가 필요한 곳은 소망교도소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대일 제자양육이다. 올해 3월부터 시작해서 10주 동안 재소자들과 일대일 양육을 했다. 재소자 55명이 일대일 제자양육을 신청했는데 그들 중 3명이 출소해서 52명이 수료했다.

일대일 제자양육은 이름 그대로 양육자를 동반자가 일대일로 양육해야 하는데 형편상 26명의 양육자가 2명의 동반자를 양육했다. 양육자들은 10주 동안 매주 목요일 아침 7시 교회에 모여 기도한 다음 교도소로 출발했다. 오전과 오후 2과목씩 양육하고, 오후 5시가 넘어서 되돌아왔다.

일대일 양육자들에게는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기쁨이 있다. 그 기쁨 때문에 양육자들은 각자의 바쁜 일정들을 뒤로 하고 하루를 온전히 떼어 재소자들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는 데 헌신했다. 그런 양육자들을 볼 때마다 존경과 감사가 절로 나온다.

처음 재소자들과 일대일 제자양육을 시작할 때 그들의 부정적인 태도나 질문으로 인해서 양육자들이 과목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힘들어했다. 적지 않은 마음의 공격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 양육자들을 위해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었다. 나는 양육자들에게 “너무

진도에 연연하지 말라”고 격려하고 양육자와 재소자들을 위해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양육자들의 헌신과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재소자들의 얼굴이 조금씩 밝아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동반자들이 양육자들과 활발하게 교제하고, 조금씩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재소자 한 명 한 명을 위해 기도하고, 무사히 일대일 제자양육을 완주한 양육자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해 주실 것이라 확신한다.

비록 우리는 작고 미약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크고 광대한 분이시다. 그분을 믿고 따라갈 때 우리 안에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새사람사역팀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실 것을 기대한다.

소망교도소는 기독교 민영교도소이지만 기신자가 30%이고, 불신자가 70% 정도이다. 일대일 제자양육을 통해 믿지 않는 재소자들에게 믿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많이 열리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 이러한 귀한 사역에 더 많은 성도님들이 동참하면 좋겠다. 우리는 9월에도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일대일 제자양육을 하려고 한다. 일대일 양육자가 더 많이 필요하다. 많은 성도들이 새사람사역팀과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한다. 일대일 제자양육뿐만 아니라 찬양, 악기 연주 등을 해 줄 봉사자가 필요하다. 새사람사역팀에 관심과 격려, 동역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새사람사역팀과 동행해 주시고 늘 도와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새사람사역 봉사자 모집
문의: 백종신 팀장(010-3625-0266)

권사칼럼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한숙영 권사
(이촌공동체)

나는 ‘BEE Korea’라는 선교단체를 섬기고 있다. 전 세계를 다니며 목회자들과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말씀양육을 하고 있다. 현지에 가면 그곳에서 제공하는 장소에 머물고, 현지 학생들과 같은 식사를 한다. 거의 일주일을 같이 먹고 자면서 말씀을 나눈다. 그래서 정이 많이 든다. 다음 세미나에서 그들과 다시 만나면 헤어졌던 가족을 만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나는 이러한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있다. 하지만 사역을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일들이 종종 발생한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

얼마 전 사역을 위해 중국항공편을 이용해서 인천에서 상해로, 다시 상해에서 스리랑카로 이동했다. 장시간 비행으로 지쳐서 비행기 안에서 잠이 들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나는 그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깼다. 스튜어디스가 안내 멘트를 했고 수많은 중국 승객들이 그 소리를 듣고 서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 후에 나온 영어 멘트를 제대로 들을 수 없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어 매우 답답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비행기 조종석 유리창에 금이 가서 비행기가 다시 상해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상해에 돌아와서도 어떠한 안내를 받지 못했다. 게이트 앞에서 다음 비행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기약 없이 기다리던 중에 우연히 만난 중국 대학생의 도움으로 그 다음 비행기 시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착된 비행기 보상금도 받았다. 다행히 와이파이가

연결돼 현지 선교사님께 제시간에 도착하지 못한다고 연락도 할 수 있었다.

다음날 새벽 3시 큰 사고 없이 스리랑카에 도착할 수 있었다. 현지 선교사님이 제공한 숙소에서 한 시간 정도 숙면을 취한 뒤 기차를 타고 세미나가 진행되는 장소로 이동했다. 도착하자마자 조금이고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진행한 세미나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다.

스리랑카에서 2주 동안의 사역을 마치고 다음 세미나를 위해 중국 서안으로 이동하려고 하는데 비행기가 갑자기 취소됐다. 출발한 시간 전에도 그 사실을 알았다. 너무 혼란스러웠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다시 기도했다. 다행히 공항 근처에 사시는 선교사님과 연결 되어 그 가정에서 하룻밤을 보낼 수 있었다. 그 다음 날 비행기를 타고 서안에 무사히 도착했다. 이처럼 사역 현장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선한 손길로 나를 인도해주셨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시다.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묵상하면 새 힘이 솟는다.

올해만 7번의 해외 일정이 계획되어 있다. 환갑이 넘는 나이에 혼자서 오랜 비행을 견디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감당할만한 은혜를 부어주신다. 나 같이 부족한 사람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하다. 부족한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묵상하게 된다. 또한 땅 끝까지 주님의 진리가 선포되는 모습을 상상하면 흥분을 감출 수 없다. 앞으로도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전 세계를 다니며 말씀사역을 계속 하고 싶다.

신앙에세이



길혜영 전도사
(서빙고 차세대)

여름이 되면 어느 공동체나 바쁜 시간을 보낸다. 특히 차세대는 온 부서가 캠프와 아웃리치 준비를 동시에 하면서 무척이나 바쁘다. 영아부부터 파워웨이브에 이르기까지 차례로 차세대 캠프가 진행된다.

올해 차세대 여름캠프(어드벤처) 주제는 ‘바울, Jump to the World’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세상을 향해 복음을 들고 뛰어드는 모습을 담고 있다. 이번 차세대 여름캠프를 통해서 사도행전의 바울 이야기처럼 우리 아이들의 가슴이 뜨겁게 달궈지기를 소망한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복음을 가진 자의 기쁨

을 만끽하게 할 것이다.

여름캠프를 준비하면서 2016년 늦여름에 있었던 일이 떠올랐다. 당시 내가 섬기고 있었던 유치부 한 담임선생님의 6살 쌍둥이 자녀가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그 선생님께서 차세대 교사를 하려고 했던 동기 중 하나는 엄마와 한시도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두 자매의 심한 낯가림 때문이었다. 낯을 하도 심하게 가려서 딸들이 여름이 지나도록 유치부에 적응을 못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많았다.

어느 날 그 자매의 언니인 하람이가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을 뚝뚝 흘렸다. 나중에 담임선생님에게 들어보니 하람이가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말씀을 들으니 눈물이 났다”고 했다는 것이다. 그때 여름캠프 주제가 ‘예수님의 이야기’였다. 하람이의 또 다른 에피소드가 있다. 한번은 놀이터에서 친구와 노는데 주일 설교시간에 배운 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흠으

말씀 안에서 변화된 아이들

로 만드셨다”고 친구에게 전해줬다. 그런데 그 친구는 엄마가 “사람은 원숭이에서 진화했다”고 말했다며 “왜 거짓말 하나”고 파졌다고 한다. 6살 꼬마 둘이 옥신각신하며 자기의 말이 맞다고 우기다 두 아이의 엄마가 놀이터에 와서야 진정이 되었다. 그 친구 엄마가 하람이와 친구가 보는 앞에서 “자신이 잘못 말해줬다”고 말했다고 한다. 6살짜리의 믿음이 정말 대단하지 않은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대해 매주 설교를 듣고, 소그롭 한 아이의 입에서 선포되는 진리를 듣고 마음이 울컥했다.

작년 여름캠프 주제는 ‘창조탐험대’였다. 나는 하람이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아이들이 창조에 대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신나게 준비했었다.

과연 올해 여름캠프에서는 어떤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차세대 여름캠프에는 매년 많은 부모님들이 함께 하신다. 부모님들의

열정이 대단하다.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다. 부모님들의 열정을 보면서 다음세대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무한한 사랑을 느낀다. 차세대는 생애에 지속될 복을 심는 자리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이 복된 자리는 영적 부담감이 크지만 예기치 못한 기쁨이 늘 있다. 말씀 안에서 변화된 아이들을 보는 것이 바로 그 기쁨이다. 아이들이 말씀을 듣고 믿음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다.

담임목사님께서 “차세대는 또 다른 선교지”라고 말씀하셨다. 차세대 사역은 다음세대에 게 삶의 가치와 태도, 비전이 전해지는 곳이다. 이곳에서 아이들을 움직이게 하는 하나님의 꿈이 담대하고 거침없이 선포되기를 기대한다. 담대하고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게 될 우리 아이들의 올 여름이 기대된다.

온누리 선교의 새 패러다임 ‘융합선교’



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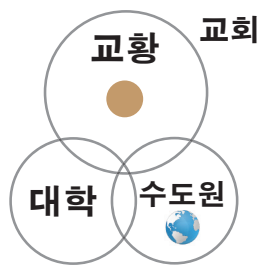


그림 2



그림 3



그림 4

지난 수년 동안 우리 교회 해외선교의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융합선교’라고 말할 수 있다. 융합선교의 개념은 교회 내외의 동원 가능한 자원들을 선교에 적절하게 연결하는 것이다. 이 개념에서 자원들이란 아버지학교나 BEE 등 직간접적으로 선교를 수행하는 수십 개의 기관, 일대일 제자양육, 와이미션과 같은 프로그램, 최근 조직화되고 있는 재능기부자, 공동체 결연선교사 제도, 중보기도팀, 외부 기관들과의 협력 등이다. 융합선교는 선교를 위하여 모두가 합심하여 기도하고 힘을 모았던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의 모습과 일맥상통한다.

‘세계기도정보’로 유명한 패트릭 존스턴은 <세계 교회의 미래>(IVP)에서 교회와 선교적 구조에 대한 흥미로운 분석을 내놓았는데 그것을 요약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예수님의 사역구조가 초대교회에도 동일하게 지속되었는데 그것이 ‘그림 1’에 잘 나타나 있다. 그림의 원들은 예수님의 사역과 사도행전의 신생 교회에서 나타나는 기능과 구조를 나타낸다. 예수님과 교회의 사역 중심에 세상이 놓여 있음을 보게 된다. 이 그림은 교회가 선교적 구조를 갖고 있으며, 선교가 교회의 본질적 사명임을 나타내고

있다. 온누리교회 구조와 매우 흡사하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

그러나 교회 역사는 이러한 모습을 거의 유지하지 못했다. 중세 가톨릭의 경우 교회가 제도화되면서 사도적 열정이 약해졌고, 초대교회의 세 가지 구조가 왜곡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그림 2’ 참조). 세계가 더 이상 중심에 있지 않고, 수도원의 일부에서 선교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이었다.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회에서도 수도원 제도를 대체할 선교적 조직을 만들지 않았고, 과거의 왜곡된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18세기 이르러 모라비안 교회가 세계를 다시 교회의 중심부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게 된다. 모라비안들의 순수한 열정과 헌신은 현대 선교의 아버지인 윌리엄 캐리와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리에게 큰 감명을 주었다. 그 이후 복음주의적 각성이 일어나면서 일부 개신교회가 선교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 후 200년 동안 개신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퍼져 나갔지만 ‘그림 3’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여전히 세 가지 기능이 서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선교는 마치 선교단체의 고유영역처럼 여겨지고, 세 가지 구조는 독

립적이고 자율적인 것처럼 되어 버렸다.

사도행전에서 보여 준 바로 그 교회에 대한 갈망과 목회자가 온누리교회를 초대교회와 같은 시스템과 뼈대를 만들 수 있게 한 것 아닐까? 교회의 모습은 성경적 유형으로 회복되어야 하며, 온 열방을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에 맞춰 세 가지 기능과 구조로 더욱 긴밀하게 연결되고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림 4’는 많은 시사점을 준다. 여전히 우리의 초점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과 주님의 지상명령에 있다. 하용주 목사의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꾼다>에서 “교회의 비전은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마찬가지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것”으로 선교적 책무를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잊지 않는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선교는 우리의 정체성이며 모든 사역에서 항상 관심을 갖고 힘써야 할 것이다.

각 영역이 겹치는 부분을 우리 교회의 예로 본다면 각 공동체 결연선교사 제도, 아웃리치, 중보기도, 선교헌금, 재능기부, M센터 봉사 등이다. 또 일대일 제자양육은 양육프로그램이지만 이를 국내외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선교의 핵심 사역인 제자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과 융합이 활성화 된다면 선교 예산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을 것이다. 전 역사적이고 우주적인 하나님의 선교에 역동적으로 참여하는 온누리교회가 될 것이라 믿는다.

우리의 많은 단점과 약점에도 불구하고 선교의 미래가 밝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선교의 주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유대주의에 갇혀있던 베드로의 입을 통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방을 향한 문을 여셨고, 핍박자 사울이 변하여 순교를 마다하지 않는 바울이 되게 하셨다. 여러 불순종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나라의 회복을 위해 많은 일들을 일으키셔서 오늘에 이르게 하셨다.

양재 2000선교에서 매년 시행하는 국내 선교역사 기행에 참여하면서 이 땅에 부어 주신 은혜들을 접하다 보면 아주 연약해 보이는 작은 일들이 인고의 세월을 등에 업고 광야를 지나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다. 지나온 흔적에서 새싹들이 돋아나고, 별판이 푸르른 초지로 변화되곤 한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는 대목들이다.

융합선교는 단순한 방법론적 면이 아니라 온누리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저비용 고효율 선교, 힘이 아닌 성육신적 연합의 선교, 우리가 행위에 앞서 선교적 존재로 거듭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임훈 장로
(해외선교분과
위원회 위원)

관상학 목사의 말과 말씀



관상학 목사
(강동 온누리교회)

언제인가부터 대학에서 회자되기 시작하다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 적잖이 쓰이는 말 중에 ‘인싸’와 ‘아싸’라는 말이 있다. 비교적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친화력이 좋아 그룹에 적극 개입해 잘 노는 사람을 인싸(Inside r)라 하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그룹 밖으로 맴도는 사람을 아싸(outsider)라고 한다. ‘아싸’는 ‘왕따’와 그 양상과 동기가 사뭇 다르다. 자신의 불투명한 미래를 뚫고 나가기에는 동아리나 과모임에 소속되기 보다는 개인플레이가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실속파들의 자진 고립일 때가 꽤 많다.

그렇다면 세상을 향한 교회의 모습은 인싸인가, 아싸인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 변화를 이루어낼 것인가? 죄악된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함을 수호할 것인가? 교회가 내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중요한 일이 거룩한 예배공동체를 이

루는 것이라면, 교회 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봉사해야 하는 모든 실천적 삶은 선교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처럼 교회는 ‘인싸’이면서도 ‘아싸’로서 거룩과 변화를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선교적 공동체이다.

전통적으로 선교는 타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전도는 국내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 여겨왔다. 그러나 글로벌 시대를 맞아 더 이상 지리적 경계가 해외 선교와 국내 전도를 구분 짓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오히려 선교는 지리적 경계는 물론 세대적 경계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통치를 증거하는 모든 삶을 가리킨다. 교육 혜택이 필요한 곳에 따뜻한 배움터를 세우고, 의료 혜택이 필요한 곳에는 양질의 병원을 세우며, 부당하고 불의한 세상에서는 약자의 편에서 공의를 선택하고, 공해와 오염에 신음하는 피조 세계 속에서 생태적 삶을 실천하는 것을 통칭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선교적 삶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로 말미암아 현재 변화된 삶이자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질서를 미리 맛보는 성도들

아웃리치? 리치아웃!

의 위대한 여정인 것이다.

그 위대한 여정의 계절이 왔다. 선교 여행으로 해석되는 ‘아웃리치(out reach)’의 계절 말이다. 복음을 들고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나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아웃리치는 각 교회마다 여름사역 중심에 있다. 성공한 아웃리치(out reach)는 ‘리치아웃(reach out; 접근하다, 손을 뻗다)’이 어떠한가?에 따라 그 성과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에 걸친 광야생활을 하는 동안 가는 곳마다 메고 다녔던 법궤가 있었다. 모세가 시내 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명이 들어 있는 그 법궤는 그 자체가 하나님 말씀의 상징이었다. 그 법궤가 무려 70년 동안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안에 있었다. 다윗 왕 제위 때 그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오던 날, 산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옮겨 싣고 아비나답의 아들인 웃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몰았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날뛰자 웃사가 손을 뻗어(reach out)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다. 웃사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여호와께서 불갈

이 진노해 그를 치시니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다(삼하 6:3-7). ‘붙들었다’로 해석된 히브리어 ‘아하즈’는 강력한 소유권을 말하는 단어이다. “이 법궤는 내 거야”하고 웃사가 뻗은(reach out) 그 손은 만인 앞에서 법궤의 주인으로 자신을 과시하던 교만한 손이었던 것이다. 웃사가 뻗은 그 교만한 손과 대적점에 서있는 한 손이 길게 뻗어 온다. 늑대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는데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끌고 다니는 곳. 암소와 곰이 함께 풀을 뜯고, 그 새끼들이 함께 뒹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는 곳. 젓먹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어린아이가 뱀의 굴에 손을 넣는 곳. 바로 그 곳으로 부르시는 손이다. 주님은 그 손을 뻗어(reach out)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내신다(사 11:6-11).

진정한 아웃리치(out reach)는 스승이신 주님의 리치아웃(reach out) 삶을 교회 안팎에서(인싸와 아싸) 드러내며 증거하는 제자의 삶이다. 제자의 길은 제대로 아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서빙고

02.793.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분당
2부 오전 9:00 분당
3부 오전 11:30 분당
4부 오후 1:50 분당
5부 (십자가의 길) 오후 4시 비전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분당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시 분당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분당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분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0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분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분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분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분당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분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권용갑 목사

매 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532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신상국 부대표(010-7933-5422)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박범식 팀장(010-5225-1519)

야베스맘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6:00~8:30 선교관 403호

문의: 정종희 팀장(010-9391-7997)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20 서빙고 한동을

문의: 김진현 팀장(010-8567-1808)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을

문의: 김상호 팀장(010-9349-5631)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30 경찬홀

문의: 김창무 집사(010-7917-8008)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몽골어 주일 14:30 선교관 401호

러시아어 주일 14:00 선교관 301호

네팔어 주일 14:30 선교관 402호/매월 첫주 군포 하나로 센터

아랍어 주일 14:00 본관 B102 / 매월 첫주 선교관 402호

페르시아어 주일 14:30 선교관 203호

안산M센터(031-491-9650)

몽골어 주일 10:30 Joy 201 / 러시아어 주일 10:00

Onnuri Hall / 네팔어 주일 10:30 Peace 303 / 캄보

디아어 주일 10:30 Peace 302 / 미얀마어 주일

10:30 Joy 202 / 필리핀, 파갈록어 주일 10:30 Peace

301 / 태국어 주일 14:00 Peace 303 / 스리랑카어

주일 11:30 Peace 304 / 베트남어 주일 예배 11:00

Peace 305 / 중국어 청년 주일 14:00 Peace 304

다문화 꿈땅 주일 11:00 Star tree / 다문화 파워웨

이브 주일 14:00 2F Library / 다문화 예꿈 주일

10:30 B105 / 다문화 대형 주일 14:00 4층 Manna

hall / 인도네시아어 주일 14:00 Peace 305 / 우즈베크

케스탄어 주일 14:00 1F StarTree / 파키스탄어 주

일 14:00 Peace 301 / 열방예배 9:00, 11:00 4F

Manna hall

김포M센터(010-7762-7718) 캄보

디아어 주일 11:00 양곡 프라자 빌딩 703호 /

차세대 주일 11:00 양곡 프라자 빌딩 705호

화성M센터(070-8671-8091) 열방

예배 주일 9:00 301호 / 네팔어 주일 9:00 302호

평택M센터(031-651-1702) 몽골어

주일 11:30 평택 Love Hall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이스라엘 중보기도 모임

서빙고: 매주 토 오전 7:30 시온홀

양재: 매주 토 오전 8:00 JDS홀

문의: 02-792-7075

대학청년부를 위한 어머니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10:00-12:30 본관 B102호

문의: 추명희 집사(010-8000-4792)

군 선교와 군입대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서빙고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214

마리아행전 중보기도모임

나라와 민족 위해 기도하는 기도부흥운동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신관 3층 드림홀

문의: 여성사역(02-3215-3227)

북한중보기도모임 안내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9시

장소: 선교관 403호

문의: 송웅주 형제(010-8591-8236)

병원사역예배/환우기도모임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 12:15-2:30

장소: 서빙고 신관 301호

대상: 봉사자 및 환우 중보 요청자

문의: 이재신 팀장(010-4753-3150)

Acts29비전빌리지 열방예배

매주 월~금 오전 11시30분~12시 30분

서툼은행(031-331-8182)

서빙고출발 09:30, 양재출발 10:00

비전빌리지(양재)출발 15:00

한터 공동체 예배

탈북민사역에 관심있는 분들을 위한 예배

시간: 매주 오전 10시

장소: 한누리 본부(지하철 9호선 가양역

6번출구, 투썸플레이스 건물 6층)

TIM MK 중보기도 모임

시간: 매월 둘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302호

문의: 김동희 간사(070-4464-8119)

차세대 목요어머니기도회

시간: 매주 목 오전 10:30

장소: 신관 4층 누리를

온누리가족 나무동생(공원모역) 잔여

기 계약자 모집

자격조건: 온누리교회 등록교인만 계약이

가능(계약자의 가족까지 안지)

동산위치: (재)충효공원(강원도 원주시 문

막읍 공촌리 산 152-2)

사용안내: 매장방식의 납골과, 봉분에 의한

매장

잔여수량(기): 80기

문의: 02-3215-3178-9

제6회 진새골 명품가족캠프

일시: 8월 13(월) 15:00-15(수) 17:00

장소: 진새골 온누리교회(경기도 광주)

문의: 진새골 온누리교회(031-767-27

76, 010-5299-1917)

IT인들을 위한 세미나

일시: 7월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장소: 가로수위집 (강남구 압구정로 10

길 43 엘로아벤 빌딩 지하 2층)

강사: 17일 박대수 전무 (KT CR 부문장)

24일 김정훈 전무(구글코리아)

31일 김만희(축복의 사람)

문의: 02-3215-3651

안산 온누리지역아동센터 급식교사

채용

분야: 급식교사(조리사)

자격: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서류: 이력서(추후 등본, 건강진단서)

지원: onnurim911@gmail.com

문의: 031-491-9601, 010-5034-0091

CMN 추석 캄보디아 아웃리치

일시: 9월 20일~27일

비용: 50만원(항공비 별도)

사역: 의료 및 어린이사역

문의: 김경아 간사(010-8983-3520)

양재

02.570.7430

주일예배(사랑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월요QT예배

매주 월요일 오후 7:30 화평홀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목요찬양예배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7:50 기쁨홀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 오후 11: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4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50, 하용조 기념홀

문의: 이수준 팀장(010-6398-6022)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20 트리니티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

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Toddler 24~48개월(주기철채플실)

Jesus Rock 5세~초등1(충성홀 9:00)

Jesus Crew 초등2~초등6(JDS홀 9:00)

Jesus Vine 중등1~중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부: 도곡1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도곡1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도곡1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도곡1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예꿈: 도곡1관 꿈터(B동 1층)

꿈땅: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도곡교육관 주일 11:0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11:00 영어 차세대예배

Hope Zone(Newborn~Age4)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Love Zone(Age5~Grades2)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Joy Zone(Grades3~6)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OEM Youth(Grade7~12)

: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

(청년부)

칼렐 청년부 예배: 도곡2관(중대부고5층)

사랑부 예배(장애 학생)

주일 오전 9:00 비전홀B

문의: 이루어진 전도사(010-9150-5190)

프랑스어 예배

설교: Jean-Martin Wehrey

일시: 주일 오후 2:00

장소: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5467-9878, *통역 지원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

들을 위한 공동체

매주일 14:00 양재 JDS홀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병원사역예배와 기도모임

장소: 양재 비전홀A

시간: 매주 수요일 10:30-14:00

문의: 조현영 팀장(010-3328-6366)

*환우중보심방전도 요청을 받음

살롬기도회

대상: 나라와 통일과 평화를 위해 기



세상에서 가장 순한 영상이 날마다 Coming SOON!

SOON

CGNTV 대표 모바일 콘텐츠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SOON(순) 페이지 오픈!

페이스북, 유튜브를 통해 만났던 콘텐츠들을
CGNTV 사이트(www.cgntv.net)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SOON 콘텐츠

 CGNTV 순간의 감동 SOON CLIP	 3분 Message	 KNOCK REPLAY	 [미니콤] 두근두근 마카롱
SOON 클립	3분 Message	KNOCK REPLAY	[미니콤] 두근두근 마카롱
 KNOCK 미니휴먼다큐	 PAUSE 퍼즈	 CGNTV 크리스천 30초 공감 삼.공. 시리즈	 너와 나의 공감일기 감수성
미니휴먼다큐	PAUSE 퍼즈	삼.공.	감수성

CGNTV
정기후원 [KEB하나은행 573-910002-67804]
문의 02-796-2243